



문화매일신문



제 1538호

2024/2/26/Mon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북도, 글로벌대학 혁신이행 협약체결로 성공적 이행 다짐!

경북도, 「글로벌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포럼」에 참석

경상북도는 충북대학교에서 21일 개최된 「글로벌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안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과 글로벌대학 혁신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체한 이번 행사는 교육부장관, 글로벌대학위원장, 글로벌대학 및 시도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별 이행 협약 체결과 전략 포럼 순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글로벌대학 혁신이행 협약을 기반으로 경상북도는 글로벌대학의 혁신 추진과제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등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역 및 대학 간의 공동추진사업 발굴과 운영으로 지역발전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통합대학 출범, K-ER협업센터 설립으로 도내 교육·연구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국인문융합학술원 및 국학전통대학원 설립, 안전자유전과제 실시, 다중전공 이수자 확대 등을 진행한다.

포항공과대는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 정주형



기술창업 퍼시픽 벨리 완성,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수요 맞춤형 환승에 글로벌연합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글로벌대학 실행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특례 우선 적용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국연구재단은 사업들 간 유기적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실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돕게 된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안동대-경북도립대와 포항공과대 혁신이행 협약은 전통문화 기반의 통합된

K-인문중심형 국·공립 글로벌 대학의 출발이자 지역전략산업 기반의 퍼시픽 벨리 창업을 밝히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경상북도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지방대학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 지방문화원 시설 개선 힘쓴다

도, 29일까지 '지방문화원 노후 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공모

충남도는 오는 29일까지 '지방문화원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시군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1억 5000만원(도비 4억 6000만원, 시군비 6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시설 내 보안 및 안전 강화, 문화원사 구조 재배치, 공연장 확장·보수 등을 추진한다.

현재 도내에는 천안시 2곳을 포함해 각 시군별 1곳씩 총 16곳의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 노후 및 공간 부족으로 제한됐던 문화활동이 활성화되고,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진배 문화정책과장은 “문화원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도민들이 더욱 쾌적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경기도, 신규 공무원 만난 김동연도지사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 위해 한 팀이 되자”

경기도, 가족과 함께하는 공직입문 축하 ‘031 첫날’ 행사 개최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광고청사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신규 임용자들을 만나 “세계경제 판이 바뀌고 있다. 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고,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라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정책결정권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기도는 확실하게 다르게 했으면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인 경기도의 집단지성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한다.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다 함께 한 팀이 되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무원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지사는 “공무원의 확실성을 깨야 한다.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며 “씩씩하고 용감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여

러분들의 실력을 기르고, 인간적인 성숙함과 공익에 대한 헌신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소신 있게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 이름으로 사용된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규 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26명, 9급 공무원 9명, 연구·지도직 12명 등 다양한 직책·직급으로 구성됐다.

가족과 친구, 선배 공무원까지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청사 안내에 대한 예의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임용장 수여식, 신규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영상 시청, 가족이 전하는 감사의 편지 낭독, 도지사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석한 신규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면서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도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구성된 ‘031 꾸러미’를 제공해 신규 공직자들이 초기에 적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범상/기자

“청년 디자이너의 꿈과 동행합니다” 서울시설공단, 동대문 DDP패션몰에 무료 패션쇼룸 운영

한국영 이사장 “공단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동행사업 지속 보완 추진”

서울시설공단은 ‘약자동행’ 정책의 일환으로 동대문 DDP패션몰 1층에 패션전공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작 실용 패션쇼룸’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쇼룸은 유리로 된 전시장에 선명한 조명과 매력적인 런웨이 영상을 조합하여 주목도를 높였으며, 20점 수준의 창작 의상들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많이 찾는 동대문 DDP패션몰 입구에 위치하여 국내외 바이어들과 동대문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쇼룸 전면 포스터에 기재된 청년디자이너의 이름과 연락처를 통해 해당 의상들을 구매 문의할 수 있다.

이 쇼룸은 DDP패션몰 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공간으로, 서울패션허브와의 협업을 통해 조성됐으며, 청년들의 신진 디자이너로서의 시작을 응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서울패션직업 전문학교 박하나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이 준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선보일 공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런 기회들이 발판이 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품을 전시하는 박수영, 이지우 학생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와서 볼 수



있고 누구나 부담없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전시기획과 큰 차이점으로, 개인 브랜드 론칭이 꿈인데 밀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시설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쇼룸을 활용해 청년들이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미래 K-패션의 주역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단만의 동행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통합지원 거점공간으로 역할 강화

혁신타운, 도-시·군 사회적경제 공무원 및 민간지원조직 간담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도내 사회적경제 담당자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킹’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은 도가 작년 12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일선에서 일하는 시군 공무원 및 지원조직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지원 조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도 금융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해 14개 시·군 사회적경제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은 ▲정부 및 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설명, ▲14개 시군 지원조직 및 업무 공유, ▲혁신타운 시설 안내 및 2024년 신규 지원사업 안내, ▲지원 조직 및 기업 간 협력사업 및 민생 활력 시책 발굴 논의였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가치지표 고도화 지원사업’ 등 2024년 도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14개 시군 지원조직 간 업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혁신타운이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써 더욱 거듭나기 위해 혁신타운 시설 및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회적경제 국비 삭감에 따라 침체돼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발굴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혁신타운은 도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초 선정된 후, 2023년 1월 개관한 사회적경제 혁신 및 네트워킹 공간으로 입주기업 사무공간 지원(24개실), 혁신타운 내 시제품 제작실 및 라이브커머스 공간 등을 활용한 사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경북도의회, 日 ‘죽도의 날’ 조례 폐기하고, ‘죽도의 날’ 행사 중단하라!

경북도의회,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규탄 성명 발표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05년 2월 22일은 일제가 러일 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로 집어삼킨 날이며, 100년 후인 2005년 시마네현이 이 무단편입을 근거로 ‘죽도의 날’을 지정한 이후, 2006년부터 금년까지 19년째 정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이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지방정

부인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알뜰한 꿈수다”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북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죽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요구하면서, “근거 없는 억지로 가득 찬 역사교과서와 외교 자료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단정 삭제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발의

어린이집 및 학교 인근 30미터로 확대, 횡단보도 인근 5미터 금연구역 지정

울산시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 5미터 이내 구역과 대규모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횡단보도와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 가스 충전소, 전기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지역과 다량의 화기가 밀집된 주유소, 충전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및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까지 포함하고 그 범위가 30미터 이내로 확대됐다.

이성룡 부의장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은



더 넓게 금연구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미터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황규진/기자

‘임말숙 부산시의회의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의원 선정

2024 지방의정대상 우수의원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등 적극적 입법 활동, 활발한 주민 소통 노력 인정 받아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2024년 2월 23일(금) (주)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4 지방

의정대상 우수의원’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법률저널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에서 후원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 우수의원’ 시상식은 2월 23일(금) 14시 30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에서 개최됐다.

‘2024 지방의정대상 우수의원’은 2023년 의정활동에서 각 지방의원들의 주민 소통노력, 정책홍보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심사·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주민과의 소통노력 평가기준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본회의에서의 5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 제·개정, 정책토론회 등이 포함되고, 정책홍보 활동은 보도자료 배포 및 TV 또는 라

디오, 지역언론 등을 통한 인터뷰가 심사·평가에 반영되었다.

임의원은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등 23건의 조례 입법 활동, 5분 자유발언 8회, 시정질문 2회, 주민 공감 의정활동 32회, 다수의 결의·질의 활동 등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였고, 높은 선거공약 이행률에서 의정활동 우수성과 혁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두 번의 시정질문을 추진하면서 예산과 기금, 재무감사 보고서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인상 부담을 줄이는 등 부산시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 수상의 목적과 같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

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지난 12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도 상을 수여했지만,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부산시민들이 상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임의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단체 대표 의원으로 매달 ‘스마트 BOOK모닝’ 운영, 각종 교육, 간담회, 연구용역 활동 등 양질의 정보교환/토론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교육 분야에서 부산형 스마트 시티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희태/기자

영양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양지사 매각 반대 촉구 건의문 채택

영양군의회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의결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영양군의회 입법 고문이 선임된다.

아울러 우승원 의원의 6인이 공동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양지사 매각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양지사 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토록 촉구했다.

또한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

을 갖춘 민간위원 등 3명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회운영 및 각종 의안 심사·처리에 따른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영양군의회 입법고문을 위촉한다.

김석현 의장은 “지역 실정을 외면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양지사 매각 방침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양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 활동 시작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한지숙 의원)가 2월 22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는 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학습하기 위한 연구단체로, 한지숙 대표 의원과 김진영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동맞춤형복지팀 공무원과 주거복지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 주거복지서비스 현황을 살피고 아동주거빈곤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주택과 주거복지팀은 주거비 보조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상향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각 세부 사업 내용과 지원 현황을 발표

했으며,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센터 운영 현황, 2023년 사업 성과와 2024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거복지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며 연구단체 활동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신천동처럼 침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반지하주택 소멸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권동일/기자

하남시의회, 2024년 첫 추경예산 심사 ‘엄격하고 간간했다’

하남시의회는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에 따르면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2건, 자치행정위원회 21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5일~20일 4일 동안 집행부로부터 올 한해 하남시가 추진하게 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현미경 심사를 통해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엄격하고 간간하게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훈중)는 2024년 본예산 대비 90억7천400만원(0.96%) 증액·편성된 총 9천504억1천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환 심사했다.

예결위는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시설비)’ 59억원에 대해 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고 공사비 58억원은 삭감했다.

예결위 의원들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지난 22일 오후, 미사호수

공원을 직접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현재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미사호수공원 현황 확인을 통해 해당 예산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살피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했다.

최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심사보고에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및 명소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타 지자체 음악분수대 사례를 신중히 검토하고 유수지에 설치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과 추상적인 예산 규모에 우려가 있어 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강성삼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다뤄진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올 한 해 시정 이정표로서 굵직한 정책과 사업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됐는지,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박행민·최수진·권진경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키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 월동 후 마늘·양파 생육 관리 철저 당부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마늘·양파가 생육재생기에 들어감에 따라 월동 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 평균기온은 2.8°C로 평년보다 2°C 이상 높았고 일조량은 평년보다 17% 정도 적었으며 월동기 강우량이 많아 배수로 관리, 피복물 제거, 웃거름 주기, 병해충 방제 등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온용 피복재는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2월 하순 ~ 3월 상중순까지는 벗겨주는 것이 좋으며 한 번에 제거하기보다는 저온에 급격히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씩 순화시켜 제거하는 것이 좋다. 피복재를 걷은 후 잡초를 제거하고 흙이 얼었다가 녹으며 수거처

른 마늘과 양파는 잘 눌러준 후 흙을 덮어주는 것이 좋다.

웃거름은 질소와 칼리를 2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2~3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며, 기상 상황과 생장 속도에 맞춰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웃거름을 너무 많이 주거나 시기가 늦으면 마늘은 별마늘(2차 생장) 발생, 양파는 구가 비대하지만 성숙하지 않고 영양생장만 하는 청립주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잎마름병, 녹병, 노균병, 잎집썩음병(춘부병),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 병해충 밀도가 높아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등록 약제로 적기 방제를 해야 하며, 약제 선택 시 서로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

아 사용해야 한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마늘·양파는 월동 후 관리가 생육과 품질을 좌우하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들이 재배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스페인 4대 도시 세비야 시와 우호 교류의향서 교환

이상일 시장,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과 만나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현지 시각) 스페인의 금융·문화·관광 중심지인 세비야에서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과 만나 용인과 세비야 간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

이 시장과 산즈 시장은 이날 세비야 시청에서 두 도시가 경제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

스페인 남서부 안달루시아 지역 세비야 주의 주도인 세비야 시는 알카사르 궁전과 세비야 대성당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다 1929년 이베로 아메리칸 엑스포가 열렸던 스페인광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342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도시다.

인구는 약 68만명으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에 이어 스페인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고 항해를 시작한 곳이 세비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으로 알려진 세비야 대성당은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다.

세비야 시는 안달루시아 지방 GDP(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산업 중심지로 섬유, 자동차 등 제조업과 금융이 발달했으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장과 산즈 시장이 서명한 우호 교류의향서에는 '양 도시의 안정적인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대외 단 교류, 박람회·세미나 개최, 문화예술 단 교류, 홍보 지원 등 경제와 문화, 관광, 교육, 환경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안달루시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세비야 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맺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들이 많이 찾는 세비야와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양 도시가 서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함께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팹(Fab) 6개를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건설하게 되는데 이는 단일 반도체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SK하이닉스도 용인 원삼면에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한다"며 "이같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가진 반도체 도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고려·조선시대의 훌륭한 위정자들의 유산도 많이 있는 곳이며,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민속촌 등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용인과 세비야는 닮은 점이 많은 도시이므로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자"고 했다.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세비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산즈 시장은 "한국에 가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매결연에 준하는 우호교류의향서에 이 시장님과 함께 서명했으니 적절한 때 한국과 용인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산즈 시장은 이 시장 일행에게 세비

야 시청 곳곳과 시의회 본회장을 직접 안내하며 설명했다. 그는 "세비야 시청이 있는 이 건물의 역사는 400년이 넘는다"며 "세비야 시청에는 훌륭한 회화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박물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명식에 동석한 세비야시 고위 간부는 "시장 접견실에는 스페인 3대 화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17세기 화가 바르톨로메 무리요의 작품도 걸려 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이번 우호 교류의향서 교환은 이 시장의 민선8기 공약인 '세계 미래산업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 추진'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전통과 역사, 문화, 산업 등의 측면에서 세비야와 교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태본 스페인 아라곤주 한인회장을 국제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세비야 시와 접촉해 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6일에는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와도 우호 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

이 시장은 용인을 방문한 빌 그래벨 윌리엄스 카운티장과 만나 의향서에 공동 서명했다.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을 짓고 있는 테일러 시티 등 12개 시가 윌리엄스 카운티 소속이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여주시는 새로운 『여주시사』 편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14시에 여주박물관 여마관 3층 강의실에서 이창우 여주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편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에 미 참석한 편찬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

한 후 조성문 편찬위원장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편찬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찬위원들은 시사편찬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기초자료 조사·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등의 실행에 따른 학술적·전문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날 제안된 사항들은 시사편찬실에서 구체화하여 차기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는 시민들의 시사편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익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식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 블로그를 통해 '자료수집 및 기증 캠페인'과 '시민 제안 시사편찬 아이디어 공모'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사편찬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여주시사』 편찬사업은 『여주군사(驪州郡史)』를 발간한 이후 20년 만에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그간 학술적 성과를 반영하고 여주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여 학술 및 교육적인 활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시사편찬 과정에서 수집·발굴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여주시사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 구축'으로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최우수상

업무 효율 극대화해 서비스 혁신, 전국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수원시가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 구축'으로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2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년관에서 열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지방행정혁신대상은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행정혁신 사례를 발굴해 표창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 구축'은 최신 IT(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공공기관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한 사례다.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 서비스 혁신, 전국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행계획'에 수원시 사례가 소개되는 등

파급력도 인정받았다.

2020~22년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 ERP(예산·회계·인사·복무·급여)를 구축한 수원시는 지난해 초 공공기관 통합형 그룹웨어(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해 12개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공공기관 공통업무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면서 수원시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관 공통업무에서 수기(手記) 업무처리가 사라지고,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 구축으로 인프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업무를 효율화해 비용 117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에 수원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줄기세포치료제 선도기업 메디포스트와 업무협약 체결

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청신호'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메디포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남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체에 탄력이 불을 전망했다.

시는 23일 오후 4시30분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원일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성남시와 메디포스트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외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신 시장은 "이번 성남시와 메디포스트의 협력이 성남시는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남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대표는 "앞으로 성남시가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 메디포스트는 세계 최초로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선도기업이다.

이번 메디포스트와의 협약으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자동 주택전사관 부지에 약 9만9000㎡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공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광주시, 산모 마음 읽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산후 우울 심리지원' 제공

광주시는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산후 우울 심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후 우울은 출산 후 약 2주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은 52.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산모를 대상으로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해 산후 우울 고위험군을 발굴한다.

산후 우울 선별검사는 에디버러 척도를 포함해 총 13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자택에 산후도우미가 방문해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산모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산후 우울 선별검사(에디버러 우울 척도검사) 결과 우울 고위험군(10점 이상)으로 분류되면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정보제공 및 심층 상담,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의 연계 등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조정호 보건소장은 "찾아가는 산후 심리지원을 통해 산모들의 정신건강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세심한 관리로 출산 후 심리적 건강과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도 이외에 난임부부 등 심리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삼/기자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청소년 대학 입학 및 사회 진출 과정 도와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를 통해 학업 지원을 받은 진○○ 학생은 올해 미국 아이오와주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액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 2024년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재학 당시 가정형편 상 꿈꾸기 어려웠던 해외 유학 과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중 배움누리를 알게 됐고, 배움누리를 통해 UWC(United World Colleges)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관 추천서 등의 과정을 지원받아 2022년 8월 UWC Changshu china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있다.

배움누리는 세계무대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 학생을 위해 학생 및 가족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대학 입학의 과

정까지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왔다.

진○○ 학생과 같이 올해 배움누리를 이용해 온 고3 청소년들 중 15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재능을 발휘하여 헤어디자이너·태권도·요식업 등의 분야로 취업해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다.

배움누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및 진로·진학관리, 문화체험, 장학금 및 후원품 지원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민간과 공공 자금이 매칭되어 201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한영기/기자

하남시, 새로운 정책 발굴에 시민대표·전문가 함께 한다

시민참여혁신위 2024년 첫 정기회의 개최

하남시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권역별 시민대표와 고위공직자, 교수, 전문 기업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발대 이후 시의 주요 사업과 연계한 정책 발전전략을 제안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하남시장, 소속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연간 운영계획 소개, 분과별 기획과제 선정 및 개별 안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5개 분과별로 ▲(일자

리)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도시개발) 완충형 신도시 하남 만들기 ▲(교통)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복지문화) 1인 가구 지원정책 발굴 ▲(교육)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활성화를 2024년 중점 추진 기획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정기회의와 수시 분과회의, 우수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체적 정책 실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K-스타일드 조성 ▲황산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 ▲신속한 교산지구 기업이전 추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현재 시장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전문성과 민간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셔서 감사를 능가하는 하남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심축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삼/기자



안양시, 올해 청년정책 64개 사업 462억원 규모로 추진

안양시가 올해 청년정책으로 64개 사업을 462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4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12개 부서 부서장과 3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비전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주거(6개 사업 11억원) ▲일자리(15개 사업 25억원) ▲창업(6개 사업 10억원) ▲문화복지(22개 사업 367억원) ▲소통참여(15개 사업 49억원)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초 덕현지구 이어 하반기에 비산초교 주변 지구(편충엘프타운)에 청년주택 13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 '청년 커리어 고민 솔루션 ALL Question'과 'AI 자기주도형 자소서 컨설팅 솔루션'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결성된 5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는 청년 창업인의 든든한 금융지원책으로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특례보증사업을 시행

한다. 문화·복지 사업은 다양한 청년층에 맞춤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후기 청소년(19~24세) 대상 '청춘을 잡아라 캠프' 및 상담 지원,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 지원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청년행복인턴십' 및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패키지 지원, 청년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등을 시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안양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이 정책을 기다리기 전에 능동적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청년이 안심하고 성장하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지원 정책 강화

화성시가 경로당 지원 정책 강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모두 749개소로 화성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경로당이 많은 지자체다. 시는 노인 복지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성형 경로당'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구애받지 않는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화성형 경로당을 조성해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2월 준공을 마치고 4월 개소를 앞둔 '탄요마을 경로당'은 교통약자를 위한 자동문 설치, 출입구 단차 제거,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판 구성 등 노약자 맞춤형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화성형 경로당이다. 특히 시 최초로 'BF인증' 획득을 추진 중인 경로당이다.

BF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환경 조성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추가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동탄5동 지산마을 경로당 건립을 올해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무릎과 척추관절 질환을 겪는 노인계층의 좌식 생활로 인한 불편 완화를 위해 경로당에 입식 식탁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경로당 250곳에 입식 식탁 세트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65곳에 지원한다. 오는 2026년까지 관내 모든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임차 보급도 확대한다. 2019년 안마의자 임차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고주파 열염마사지기도 추가해 경로당에서 원하는 건강보조기구를 선택해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조기구 보급량도 2019년 200대 대비 517대가 늘어, 현재 관내 경로당의 96%가 지원받고 있다.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활동비도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 및 사기 진작,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에게 지급되던 활동비를 기존 월 5만원과 7만원에서 회장 7만원, 분회장 월

10만원으로 인상에 지원한다.

이어, 노인 치매 예방과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한궁은 2023년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생활체육으로 시는 노년기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로당 지원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경로당 지원 사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총 1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양시현/기자

안산시, 지사보험 회의 개최... 시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안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안산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사업운영 계획 보고 ▲지역특화사업 계획 논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 및 계획 등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4년마다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평가하고 있다.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 시작인 지난해 연차별 시

행계획은 「시민이 함께 누리고 만들어 가는 혁신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8개의 추진전략, 7개의 중점 사업을 포함해 총 48개 세부사업 및 과업으로 구성해 추진했으며, 평균 125%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

박영혜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올 한해도 협의체가 내실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협의체의 노력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안산시 사회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시민의 가치를 높이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3일 안산글로벌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실무분과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최정부/기자

광명시, 보건의료 정보 상향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명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08시 부로 정부가 보건 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시청에서 재난안전본부 가동을 위한 상황판단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시립병원·민간병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박승원 시장이 본부장을 맡아 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 운영한다.

시는 의료 공백 발생 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연장 근무 확대,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 위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보건소는 이날부터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실 운영을 연장하며, 관내 의료기관이 파업할 경우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보건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권동일/기자

의정부시, 2월 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추진

인력·장비 집중 투입해 사고 예방에 총력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인한 도로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자 2월 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선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작년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



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포트홀 등 중점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만식/기자

경기도와 함께 독립영화의 배급부터 상영까지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 다양성영화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옥석)은 경기도에 우수한 독립영화의 상영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민에게 고른 문화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경기도 다양성영화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 경기인디시네마 배급지원
'경기인디시네마 배급지원'은 다양성

- '경기인디시네마 배급지원작' 10편 선정해 배급·유통 지원
- '경기인디시네마 기획전 운영관' 5개관 선발해 독립영화 무료 상영관 운영
-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통해 지역민 중심의 영화제 8개 지원

영화의 안정적인 배급·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순 제작비 10억 원 이하의 국내 장편 다양성 영화를 보유한 경기도 소재의 제작사·배급사이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한 경기도 IP 지원 작품이면 된다. 경기도 IP 지원 작품이란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 경기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작, 경기 스토리작가 창작소 선정작 등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 작품을 의미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배급지원작 5편, 집중 배급지원작 5편을 선정하게 된다. 개봉 시 일반 배급지원작은 편당 3,000만 원, 집중 배급지원작은 편당 4,500만 원 규모의 홍보마케팅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14일 오후 4시까지 경기영상위원회 누리집(www.ggfc.or.kr)에서 할 수 있다.

□ 경기인디시네마 기획전 운영관
'경기인디시네마 기획전 운영관' 지원은 독립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도민들이

인근 상영관에서 이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상영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경기도 내 5개관 내외를 선정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영관 당 2,0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상영관은 매월 우수 독립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하는 '인디편' 기획전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극장을 거점으로 독립영화를 관람하고 토론하는 '독립영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소재한 영화 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영화관)을 직접 운영 중인 주체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0일 오후 3시까지 경기영상위원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은 영화를 기획 중인 경기도 내 단체를 최대 8팀 선발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집중

지원 부문'에 최대 4,000만 원, '일반 지원 부문'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소규모 영화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본 사업 내에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선정된 단체에서는 영화제 기획, 프로그램 선정, 부대행사 개최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실무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영화제의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13일 오후 3시까지 경기영상위원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OTT 플랫폼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영화는 시장 체제와 지원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며, "경기도의 다양성영화 유통 지원을 통해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경기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효숙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 의료 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지난해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가칭)동의정부역 신설, 오는 4월에 최종 결과 나올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3일 철도물류항만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2년간 관심을 갖고 제안해 온 경기도 GTX-E+노선(별내-송우 구간)과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과의 연계 및 공용선로 사용, (가칭)동의정부역에 대하여 경기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재점검했다.

오석규 의원은 "지난 2년간 GTX-E+노선(별내-송우 구간)과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 연계와 공용선로 및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해 왔다"면서, "경기도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난해 4월에 착수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난해 12월까지의 당초 경기도가 구상했던 GTX플러스 노선을 검토해왔고, 이후에 오석규 의원께서 제안한 부분을 추가검토 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이 4월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정도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은 탐석, 민락, 고산 등 의정부 동부지역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용역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2022년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GTX-E+노선(별내-송우 구간)과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을 연계해 선로의 공용 사용과 공용역사인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최초로 제안했다.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인 남동경 국장이 좋은 제안이라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 용역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오 의원은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 용역의 (가칭)동의정부역 반영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요청하는 등 경기도 GTX-E+노선(별내-송우 구간)과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의

공용선로 사용 및 (가칭)동의정부역 이어왔다.

김범상/기자



NH NongHyup 100% 영양고추 500g

농협농업협가공사업소

경북도, 진료공백 방지 최우선 목표로 시군과 힘모아

이 도지사, 23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참석 후 지대본 회의 주재 시군 단체장들에게 도민 불편함이 없도록 총력 대응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장 군수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 후 곧이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며, 의료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화를 위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이철우 도지사는 “시장 군수님들께서 의료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현장 목소리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의료공백 위기로 인해 도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시군 지대본 구성 및 총력 대응 ▲관내 의료기관 진료현황 상시 모니터링, ▲응급의료체계 유지 ▲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평일 2시간, 토요일 연장근무 등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당부와 협조를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2월 23일부터 보건의료재난 위기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기존 총괄지원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를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로 격상해 대응한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부지사(차장) ▲안전행정실장(총괄조정관), ▲기획조정실장(총괄지원관), ▲복지

건강국장(통제관) ▲보건정책과장(담당관)을 지휘부로 구성하고, ▲상황관리총괄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구조구급반 ▲의료방역반 ▲재난수습홍보반 등 10개 실무반을 편성해 우선 대응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근무반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선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731백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및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실국별 전담제 운영을 병원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 병원의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4년 경북농민사관학교 「현장특화교육과정(사과) 개강식」개최

윤경희 청송군수, “현장특화교육이 농업인 영농기술/경영능력 향상 기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효과적 농업교육 확대에 나가겠다”고 전해

청송군은 지난 23일, 청송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4년 경북농민사관학교 현장특화교육과정(사과)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현장특화교육과정(사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경북농민사관학교 조환철 교육본부장의 ‘농업대전환 경북농민사관학교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경북농민사관학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특화교육과정(사과)은 선도농(농업마이스터)의 사과재배 선진기술 이전교육을 통한 과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생 농장(청송)을 순회하며 농가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도농 농장 비교견학을 통한 사과재배기술 역량 증진 및 청송사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지난 1월 3일부터 19일까지 청송군 과수농가 중 사과재배경력이 2년 이

상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생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1월 25일 면접을 거쳐 지원자 14명 중 교육생 11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장특화교육을 통해 농업인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농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우수 공동주택 7곳 선정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10곳 평가 이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우수 공동주택 7곳을 2023년도 그린아파트로 선정 그린아파트 인증 아파트 7곳, 상장 수여/온실가스 감축사업비 총 1천2백만 원 지원

부산시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도 그린아파트」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아파트 인증제’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전기·상수도·가스 절감률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율 ▲탄소중립 마을 참여율 등 정량적 지표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활동 등 정성적 지표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평가한다.

이번 그린아파트 선정을 위해 시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1천210곳을 대상으로 16개 자치구·군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최우수 ▲영도벽산비치



타운(영도구), 우수 ▲삼익비치아파트(수영구) ▲신평현대아파트(사하구), 장려로 ▲주례한일유엔아이아파트(사상구) ▲주례반도보라매머드아파트(사상구) ▲협성르네상스타운(서구) ▲현대비치아파트(남구)를 선정했다.

그린아파트에 선정되면 ‘지구의 날’ 행사 시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비로 최우수 400만 원, 우수 각 200만 원, 장려 각 100만 원 등 총 1천2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비는 아파트 내 엘이디(LED) 조명 교체와 나무 심기 등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그린아파트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무상설치(설치가능한 경비실만) 혜택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지난해에만 총 8만8천400톤을 기록했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아파트 단위의 시민 주도적인 활동이 활성화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 성과도 거뒀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도 공동주택 입주인들이 그린아파트 인증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영양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대응 전략회의 개최

오도창군수,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응 위한 군민·전문가들 다양한 목소리 반영, 우수 평가 받도록 차별화된 사업발굴에 전체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



영양군은 22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박준호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점 발굴사업 담당 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달한 ‘2025년 투자계획 평가계획’을 설명하고 신설·변경된 평가항목(지표)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가정사황에서 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이 상향된 계속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과 영양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될 신규 투자사업의 발굴 및 보완·수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영양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으며, 2025년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있다.

또한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군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발굴에 전 부서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청년 가구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26일(월)부터, 19~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분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기대

대구광역시는 오늘 26일(월)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지속적 주거비 지원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2차 사업으로 연장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이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지원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8,161명을 선정했고, 총사업비는 207.4억 원(국비 103.7억 원, 시비 103.7억 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1차 사업 지원 결과, 대상자는 지역 대학교가 있는 북구·달서구·남구 지역에 집중돼 있고 20대 초·중반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미취업 및 저소득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도에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고, 향후 3년



간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총 9,17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방을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실무자 회의 참석

봉화군은 지난 22일 충남 천안시에서 개최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실무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개최한 제8회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시장·군수 협력체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용역사가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13개 지자체는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증평~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329km, 약 7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수도권 지방 경제구조를 탈피해 중부권이 새로운 경제, 국제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예천군은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예천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460동, 지붕개량 21동 총 481동을 지원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창고 등 비주택은 최대 약 540만 원, 주택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개량 연계 신청 시 지붕 개량비

로 5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과 지붕 개량비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이며,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으로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650-6192)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일/기자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수훈제(獸魂祭) 개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권오성)는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및 동물실험 등 사람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수훈제(獸魂祭)'를 23일 동물위생시험소 전정 수훈비(獸魂碑) 앞에서 개최했다.

수훈제는 가축전염병 예방, 병성감정, 도축검사, 동물실험 등 동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각종 질병 예방 활동, 연구 등의 목적으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마련한 진혼(鎮魂) 행사다.

이날 수훈제는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이 참석해 분향, 묵

념, 진혼문 낭독, 제례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도축,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추모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오성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생명 존중을 위한 상징적 행사인 수훈제를 통해 인간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의 생명도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가축질병과 동물실험 등에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다

울진군, 문화재 관리 활성화 박차! 국비 5개 사업 추가 선정 쾌거!

성류굴 방문객센터 건립, 장양수 홍패 보호각 주변정비 등, 12억 5,000만원의 예산 확보
 순병복 울진군수, "울진군의 뿌리인 자연, 문화유산 등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서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

울진군은 전통과 역사가 담긴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12억 5000만원(국비 8억7500만원, 도비 1억8,750만원, 군비 1억8,750만원)의 2024년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번 사업에는 성류굴의 가치를 알릴 방문객센터 건립과 장양수 홍패 보호각 주변 정비사업 등 5개 문화재 보수가 진행된다.

성류굴 방문객센터는 1963년 공개동굴로 개방 후 성류굴의 역사·문화적 자료와 자연유산의 가치를 알릴 홍보시설이 없어 작년에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2024년 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시

관 기획과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군은 2025년부터 건축물 착공을 목표로 하여, 성류굴의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9년 성류굴 내부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진홍왕이 행차한 명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성류굴 명문 전수조사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성류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동굴 내외부 안전진단 및 대책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국보인 장양수 홍패 보호각에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석축 보수·화장실·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과 천연기념물인 후정리 향나무 외 1개소 보수치료를 위한 2억원을 확보하여 천연기념물 보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예산이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며 "울진군의 뿌리인 자연, 문화유산 등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서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영덕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김광열 영덕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인구정책 대전환" 피력



영덕군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정책에 대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분과장을 맡고 있는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장을 초청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와 기본방향, 투자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투자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포인트, 타 시·군 우수사례 등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장효천 원장은 △투자계획 수립 과정의 충실성 △체계적인 인구조사 원인 분석 △현황과 기본구상 간 논리적 연계성 △사업발굴 근거 및 우선순위 분석 △사업 내용의 구체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의 운영 △사업

기간 점검 및 성과관리 등 전략적인 접근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과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이 병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의 안정적인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문화/기자

문경시,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신청 접수

신청 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문경시는 오늘 26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1차 신청에 이어 오늘 26일부터 1년간 2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재산이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달리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1차 신청에서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었는데 이번 2차 신청으



로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군위군 주민주도 '군위 신활력플러스 두북리 아카이브'출간 기념회 성료

군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원하는 '액션그룹'인 '삼국유사 군위화랑'이 지난 22일, 두북리 마을회관에서 '우보 두북리 아카이브' 출간 기념회를 진행하였다.

'액션그룹'이란 군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동일가치와 사업 목표를 가진 군위주민들로 구성해 그룹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기획한 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조직체이다.

'삼국유사 군위화랑'은 군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지원하는 소확행 2기 액션그룹으로 군위의 마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삼국유사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군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에 참여하였다.

이번 '우보 두북리 아카이브'는 '삼국유사 군위화랑'의 기록화사업의 첫 번째 출간으로 우보면 두북리 마을과 주민 그리고 흩어지기 소설사의 삶을

기록하였으며, '우보 두북리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군위의 다양한 마을을 기록하여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국유사 군위화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션그룹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군위군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리커젠 ㊤ 간저우시장과 이차전지 산업 교류 방안 논의

포항시-간저우시, 상호협력으로 이차전지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 기대

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포항시청에서 리커젠 중국 간저우시장을 만나 포항시와 간저우시 간 이차전지 산업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포항을 방문한 리커젠 간저우시장, 양샤오메이 상무국장, 라오진펑 판공실 부주임, 량딩성 경제기술개발구 주임, 중후이 용남경제기술개발 주임, 오한성 Cyclewell 대표, 장성호 페트로마인코리아 대표이사, 최윤희 페트로마인코리아 경영관리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양 도시의 이차전지 산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만남은 이차전지특구인 간저우시의 요청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시와 교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함담 자리에서는 중국 간저우시 대표 일행은 간저우시의 투자환경 및 산업을 홍보하는 한편 포항의 산업정책을 벤치마킹했으며, 두 도시 간 이차전지 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긴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페배터리 재활용부터 원료, 전구체, 최종소재인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밸류체인

을 구축한 강점을 지닌 도시"라며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원소재, 리사이클링 등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한 간저우시와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로 상생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간저우시는 중국 장시성 최남단에 위치한 지급시로 면적은 3만 9,400km²로 장시성에서 가장 크다. 인구 986만의 대도시이며 중국의 대표적인 이차전지 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돼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에너지 차량 및 핵심 부품, 에너지저장기 등 중국의 중요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기지로 도약하고 있다.

윤태용/기자



'명실상주스포츠클럽' '2024 지정스포츠클럽'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선정

강영석 상주시장,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도 힘써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상주시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상주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 공모에 '명실상주스포츠클럽(회장 서동령)'이 선정되어 국비 11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99개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지원했으며 상주시에서는 명실상주스포츠클럽이 특화프로그램 3개(수영,탁구,볼링)와 전문선수반 프로그램 1개(수영)를 신청해 4개 사업 전체가 공모에 선정되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화프로그램은 각각 2천5백만원, 전문선수반 종목은 4천만원의 지원받아 이달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명실상주스포츠클럽에서는 이번 선정된 수영, 탁구, 볼링 외에도 배드민턴, 웰빙댄스, 줌바댄스, 라인댄스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상주시민은 누구나 원하는 종목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종목의 저변확대 및 청소년들의 선수 육성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도 힘써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상주시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동백이 통영관광홍보를 부탁해

통영관광홍보대사 동백이 재위촉식 개최

통영시는 지난 22일, 통영을 대표하는 민간캐릭터 '동백이'를 통영관광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

민간캐릭터 '동백이'는 2022년 통영관광홍보대사로 위촉 이후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 외에도 관광홍보 행사 현장 활동, 방송 출연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어 그 공이 인정되어 홍보대사로 재위촉됐다.

동백이는 통영시 시조(市鳥)인 갈매기에 시화(市華)인 동백꽃을 머리에 꽂은 통영시 대표 캐릭터로서 지난해 경남캐릭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

제 광고에서 지역대표 캐릭터로 출연하는 등 대내외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동백이는 다음달 3월 창원에서 열리는 경남관광박람회와 서울 내내여행박람회에서도 통영관광홍보대사로 관광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백이의 통영관광홍보대사로서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에 다양한 통영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다"며, 동백이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경북도, 도로 건설사업 동절기 시공중지 해제

추운 날씨에 중지되었던 도로 건설사업 2월 26일 부터 일제히 재개 지역의 우수한 인력·자재·장비 적극 반영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경상북도는 지난 12월 30일 동절기 공사 중지했던 도로 건설사업장에 대해 26일 자로 공사 중지를 해제한다.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앞으로 큰 추위는 없는 것으로 기상청 장기 예보가 발표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했다. 건설공사 동절기 공사중지는 겨울철 기온 강하로 인한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해(凍害) 우려가 있는 공중에 대해 발주청에서 선제적으로 시공 중지를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일원에 해상교량으로 가설 중인 강구대교 건설공사 등 도내 도로 건설사업이 일제히 재개된다. 도는 중지 중인 사업장이 일제히 재작공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내 절·성토 사면, 옹벽, 축대 등에 대하여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물가 상승 등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경기 활

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은 예년보다 앞당겨 발주한다. 재정 신속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급 및 기성금 지급을 신속히 추해 상반기 중에 올해 예산의 70%를 집행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최근 온화한 날씨가 예측되어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함에 따라 각종 사업의 품질관리와 건설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우수한 인력·자재·장비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간송미술관 공사 현장 점검

홍준표 대구시장, “마무리 공사시 안전관리 철저” 와 “간송재단이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 전시로 세계적인 문화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 당부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23(금) 일 오후 3시, 대구간송미술관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이곳에서 공사에 여념이 없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간송재단이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 전시를 통해 대구간송미술관이 세계적인 문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안동시는 지난 23일(금),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양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에 운전면허센터 들어선다

안동시-도로교통공단 안동운전면허센터 신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데, 도로교통공단과 안동운전면허센터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경북 북부권 주민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려면 왕복 2~4시간이 소요되는 문경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안동 운전면허센터는 안동과학대학교 내에 들어설 예정이며 20명이 응시할 수 있는 학과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 접수실, 대기실 등이 조성돼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면허 갱신·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동시는 운전면허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시설 구축과 인력 배치를 통한 운영 전담을 담당하게 된다.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민과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운전면허 응시 불편 해소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의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경

북도청 소재지이자, 경북 북부권 거점 도시인 안동시에 운전면허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안동시가 더욱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안동 운전면허센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안동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안동시에 운전면허센터가 들어와 안동, 예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동, 예천 지역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2년 연속 선정

김학동 군수, “이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예방, 조기 발견·치료,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와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 될 것 기대”

예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들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작업 관련 질환을 많이 겪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을 검진하며 특히, 일반 건강검진에서 검사하지 않거나 특정 연령대에서만 제한적으로 검진하는 항목을 지원하여, 지난해 검진대상 여성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년에는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51세~70세 여성농업인중 짝수년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이 검진대상이며 최종 선정된 600명에게

22만원 상당의 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기적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한울본부, 지역상생의 일등공신! 원전소통위원회 개최

2024년 제1차 한울본부 원전소통위원회 정기회의의 열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2일, 본부 홍보관에서 ‘2024년 제1차 한울본부 원전소통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원전소통위원회는 지역주민과 한울본부 간의 상시소통채널로서 군의원, 지역발전전문가, 한울본부장 및 사내 주요 인사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김성기 복면이장협의회회장, 문윤기 울진읍 이장협의회회장, 한울본부 제1발전소장, 신한울 제1건설소장, 신한울 제2건설소장 등 신입위원 총 5명이 모두 참석하여 기존 위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위원장인 이세용 본부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울본부 운영현황’, ‘2024년도 사업지원사업 사업계획’, ‘한울본부 사회공헌사업 실적’ 등 본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이세용 본부장은 “울진군과 한울본부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한울2호기 준공 및 신한울3, 4호기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기 복면이장협의회회장은 “열심히 경청하고 많이 배우겠다. 원전소통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한울본부 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원전소통위원회를 통해 지역과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도시건축, 공모사업 힘쓸며 위용 드러내

전국 최초 공공건축가제도 도입, 15년간 국비 900억원 확보

경북 영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난 가운데, 각종 도시건축 행정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여전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도시건축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조준배 총괄건축가를 단장으로, 공공건축가(양근보, 강승현, 석지운) 및 분야별 민간 전문가(박필제, 이상호, 김향자, 이현성)를 제4기 도시건축관리단을 위촉했다. 도시건축관리단은 지난해 비전 수립 및 정책 발굴 기획 7건,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추진 1건, 사업 발주 방식 검토 및 지원 10건, 건축 도시문화 진흥 지원(워크숍, 심포지엄 지원 등) 5건, 도시건축 분야 자문 236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24년 올해의 도시설계 대상’ 공모 정책 부문 대상 수상, 2024년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 제도’ 공모 당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 새롭게 위촉된 제4기 관리단은 지난 성과에 이어 ▲전체 인구의 66%가 거주하는 동 지역의 거점시설 집적·연계 정책 마련 ▲영주형 10분 동네 생활·복지·여가 서비스 등 초고령화 인구 지역에 대비한 공간 구조개선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 낙후 지역의 정주 환경개선 대안 마련 등 지역의 새

로운 정책 방향에 맞는 도시건축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이 직면한 인구 소멸 대응 방안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주시와 함께 국토부 공모사업인 ‘공간환경 조사연구비 지원사업’과 도시건축관리단 주관 기획 용역인 ‘원도심 도시 브랜딩 용역’, ‘공공건축물 추진비 아카이브 구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열악한 환경의 ‘삼각지마을’을 명소로 거듭나게 한 사례로 이달 초 개최된 ‘2024년 올해의 도시설계 대상 시상식’에서 공모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최한 ‘도시설계 대상’은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우수 도시설계 사례를 발굴, 시상하는 상이다. 시는 삼각지 마을의 변화상을 이끄는 등 우수한 정책과 운영으로 도시경쟁력, 주민 삶의 질 제고, 포용성과 균형발전, 지역 이해 관계자 참여도/지속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4년 민간전문가 운영/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 2개 분야에 선

정해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 공공건축 사업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건축·공간의 디자인 수준 향상과 전문성을 접목하기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총괄·공공건축가의 인건비, 운영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운영해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전문성을 보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에 따라 지역 전체의 도시경관 향상, 공공공간의 가치 회복,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10년부터 디자인관리단(현 도시건축관리단)을 운영하면서 도심재생 마스터 플랜을 비롯해 공공건축과 디자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자체장 교체와 상관없이 제도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2010년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지속사업’과 행정안전부 ‘명품희망마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900억 원의 국

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조제 보건진료소, 풍기를 행정복지센터, 참사랑 주민지원센터 및 요선제, 노인복지관, 영주 실내수영장,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건립된 공공건축물들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등 각종 건축상을 휩쓰는 등 영주시가 아름다운 공공 건축의 도시로 이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새롭게 위촉된 도시건축관리단과 함께 고품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공간 통합적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도시공간구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영주시가 최초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시행한 지역인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전략' 구체화 작업 본격 착수

김민석 정책실장 주재, 'K-저출생 극복 워킹그룹' 키오프 회의 개최 대학, 국책연구원, 지역 연구기관 등 저출생 대책 분야별 전문가 참여 신규사업 발굴, 사업 구체화 등 싱크탱크 역할... 향후 저출생 극복 마스터플랜 반영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들어간 경상북도가 본격적인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에서 김민석 정책실장, 저출생과 전쟁본부 본부장, 워킹그룹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저출생극복 워킹그룹' 키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에는 대학, 국책연구기관,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저출생 대책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 발표된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 설명, 향후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워킹그룹은 신규 사업 발굴과 도 전략 구상에 담긴 실행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등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도가 저출생 극복에 핵심 과제로 주목하고 있는 '돌봄'과 '주거' 문제는 물론,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 분야 전반이 논의된다. 특히, 전략 구상에 포함된 35개 실행 과제는 정밀한 정책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이 중 10대 핵심 과제는 전국적 모델로 성장·확산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쉼림', '교육제도' 등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장기적 접근 방안 또한, 의제로 포함시켜 폭넓게 논의해 나갈 것임에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정책실장은 "수많은 저출생 대응책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며, "경북이 앞장서서 현장 중심의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주 경북연구원 박사는 "저출생 문제가 단편적인 접근법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건 오래전 증명됐다."며 "이제는 지방이 주도해 정부 부처의 산발적 정책들을 융합해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경북도는 상반기에 시행될 현장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국회세미나 등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5월 중 '저출생극복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증 컨설팅 지원

김주수 의성군수, "앞으로도 의성군의 지역사회공헌과 사회적가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

의성군은 지난 20일, 의성군 로컬푸드직매장 교육실(2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의 3년간의 예비 단계 지정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기업으로는 카페업종 향촌당 주식회사(대표 전미향), 복숭아 가공업 무릉도원영농조합법인(대표 박현주), 식품가공업 주식회사 의성농노(대표 배성룡) 등 3개 기업이다. 특히, 안동사회적경제허브센터(센터장 김원규)의 전문 컨설턴트가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매출액 등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며, 향후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월 5일부터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는 연간 3회 개최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성군의 지역사회공헌과 사회적가치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개최'

한일 관계 발전과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및 정책 방향 제시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에 대응하고 평화의 섬 독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 창신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다양한 분야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준비한 이정대 독도위원회 부위원장(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독도는 국제적인 분쟁지역이 아니라 평화의 섬으로 관리되어 왔다고 밝혔다. 환태평양 중심에 위치한 독도와 동해해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수 독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이경곤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의 일본의 소위 '독도의 날' 개최 동향과 경북도 대응에 대한 상황 보고가 있었다. 이후 각 위원회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현황과 과제, 평화의 섬 독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미국 대선과 동북아 정세 등 국제정치 변화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동북아시아적 주체로서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재홍 경북대학교 교수는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장기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도를 직접 조사해 학

문적 성과 축적으로 생태 주권을 강화하고, 축적한 자료를 보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장은 지속적인 실효적 주권행사를 바탕으로 독도를 '평화 공존의 장'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묶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독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한일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독도 미등록 바위와 89개 부속 도서의 정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회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

구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한 경북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독도 관리에 대한 여러 제안을 정책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고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2기 지역대학 학생 행정인턴 성공 마무리

대학생 20명 대상 직무 체험 기회 제공 및 지역 이해도 제고



안동시가 지역 대학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두 달간 진행한 행정인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시행한 본 사업은, 지역 3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보고 기회를 제공하며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여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행정인턴들은 시청, 행정복지센터, 시 유관기관 등에서 본인의 희망이 반영된 부서 배치 및 직무를 담당했으며, 주 1회 한 공간에 모여 상호 네트워크 형성, 취업 특강, 정책 아이디어 발표, 청년 창업가와와의 만남, 의회 견학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과 시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특히, 22일(목)에는 정책아이디어 발표회 시간을 갖고 '대중교통 개선', '대학 연합 축제 개최', '청년 라디오 소통 채널 개설', '맛집 QR코드 팸플릿 제작' 등의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회에 참석한 권기창 시장은 "두 달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열심히 준비해준 인턴 여러분의 고생이 많았고, 이번 경험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청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시정을 펼쳐겠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한 고은혜 인턴(안동대 4학년)은 "행정인턴 경험을 통해 사무 업무를 많이 배웠고, 여러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찾아보며 좋은 정책이 많은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지역 사회에 관심이 생겼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며 지키는 "청송군 명품산림"

윤경희 청송군수,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로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을 가꿔 지역민과 함께 만들며 지키는 청송군 산림을 조성하겠다."고 밝히

청송군은 맑은 공기와 울창한 산림의 이미지를 표현한 도시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을 목표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2024년 산림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경영을 위해 다양한 나무를 심고 체계적인 숲의 기능 및 연령별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총 3,462백만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 37ha와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공익림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1,450ha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 읍·면 주요 공한지에 청송을 대표하는 소나무 및 왕벚나무 등 주요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소각산불 저감을 목표로 집중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진화화기 단독 임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감시원 등 가용 인원을 활용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작전을 구축 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송의 아름다운 산림을 병해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 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항공예찰 등을 통해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지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산사태취약 지역 내 산림유역

관리사업, 사방사업 등을 시행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생활권재해 위험인목을 제거 또는 정비하는 등 위험 요인으로 부터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내 65본의 보호수와 보존가치가 높은 노거수의 살균처리, 외과수술 및 전동타물숲 복원사업을 통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주와 임업인 소득증대/산림휴양 문화의 가치 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임업 교육으로 청송군 산림산업 발전과 임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송임산물 대학을 지속 운영 할 계획 이다. 특히 이 대학은 2017년부터 시행 2023년까지 40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50여명을 선발·교육해 임가소득 및 전문임업인 육성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관내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2022년 처음 시행된 임업직불금 제도를 통하여 지난 해에는 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 189명, 698백만원의 소득을 보전하였고, 2024년에도 홍보와 지도교육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산림의 달성을 위해 산림휴양 시설 확충, 유아숲 체험원 운영,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청송자연휴양림 내에 2021년부터 숲속 도서관을 운영하고 아동 및 일반교양 도서 1,000여권을 비치하는 등 휴양림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청정 자연 속에서 독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특별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숲속의 집 1, 2호를 재건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위해 산림복지바우처를 이용하도록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 유아들에게 청송 유아숲체험원에서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사고배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2024년 전환사업 예산 2억원을 확보해 부남면 화장리 자작나무 숲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통해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산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휴양·치유·여가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명품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명품 산림 조성하고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 청송솔빛 정원 운영,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 꽃길과 각종 화단을 조성,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평범한 일상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파천면 신기리 일대 전국 최대 규모 백일홍 화원인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산소카페 청송군'이란 지역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에 걸맞은 힐링 공간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2021년 시범단지 개장을 거쳐 2022년 정식 개장됐고, 지난 해에는 총 12만 명 이상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등 청송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해, 꽃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탔으며, 최근,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어 눈도 즐겁고 맑은 산소를 맡으며 건강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힐링 명소로, 관광 명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작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5월에는 꽃양귀비단지, 9월에는 백일홍정원을 운영하여 계절별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공연과 행사를 유치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쉼' 그리고 '힐링'의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의 경제화 실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며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로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을 가꿔 지역민과 함께 만들며 지키는 청송군 산림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등불봉사단, 안락2동 경로당에 행복한 공연 펼쳐

부산 동래구 안락2동은 지난 21일 등불봉사단에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위로공연, 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급한 단장과 봉사에 동참하는 자원봉사 대표들은 "안락2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와 공연 관람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외롭

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민구 안락2동장은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여 훈훈한 안락2동 조성에 기여해 주신 등불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경북소방본부, 구미대교 자살예방 CCTV 설치

24시간 지능형 CCTV 관제로 즉각적인 자살 예방 및 대응 가능

박근오 소방본부장, “앞으로도 경북 소방본부는 경찰,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구미시와 협업해 구미대교에 자살 예방 지능형 CCTV를 설치했다.

구미대교에 설치된 지능형 CCTV는 구미소방서에서 24시간 관제가 이루어지며 현장에 설치된 12대 CCTV가 실시간으로 교량 위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게 설계했다.

또한, 교량 위 사람의 이상행동 감지 시 자살을 만류하는 방송을 하는 동시에 소방서에 알람이 울려 경찰,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3년부터 자살 시도 다빈도 교량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 안동 월영교에 수난구조대를 전진 배치,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소방대원들에 대한 자살 위기 현장 대응 전문교육 진행 등 자살 시도자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설치된 구미대교 자살 예방 CCTV가 도민들의 자살 예방에 미약하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경찰, 시·군 등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4대 추진 전략, 6대 중점 분야별 육성 계획 수립

경상북도는 22일, 경북도청 호국실에서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하여 바이오산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 각 시군 담당 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종합계획은 올해를 시작으로 5년마다 수립되며,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의 안내 지침이 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3년 5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경북 바이오산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종합계획에서는 중장기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 환경과 글로벌 환경에 대한 분석



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춘 추진 전략에 관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관내 산·학·연 관계 전문가와 시·군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4대 추진 전략을 세웠으며, 여기에는 기반 시설

확충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을 6개의 중점 분야로 나누고 동시에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도내 각 시군의 역량과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과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곧바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6개 중점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오랜 노력 끝에 비로소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이 갖추어졌다.”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경상북도의 미래 전략인 바이오산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청소년 대상 현장체험 '바다가꿈' 운영

청소년의 해양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함양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자유학기·학년제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부산시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대상 현장체험 프로그램 '바다가꿈'(舊 청소년 바다 안전 체험학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해양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함양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자유학기·학년제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해양·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총 70회, 2천57명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코로나 19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2023년 6월부터 주요 방역조치가 완화되자 조속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2회, 51명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바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학사일정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시내 중학생 420여 명(12개교)을 대상으로 월 1~2회 진행되며, 명칭을 '청소년 바다 안전 체험학습'에서 '바다가 꿈'으로 변경했다.

프로그램은 시 어업지도선(부비호, 374톤)에 승선해 선상 안전 체험과 해상 견학을 각각 1시간씩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선상 안전 체험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선박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탈출요령, 구명조끼 착용법,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

술, AED(자동제세동기) 작동법, 구명뗏목 팽창 시범 등 해양 안전 시연을 보며 안전에 대한 교육과 현장감 있는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또, 선박탐재형 해수 중 방사능 신속 검사장비 등 '해양환경'과 항만 도시 부산의 위상 등 '부산해양', 그리고 해양데이터 수집 위성 부산샷(Busansat)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미래해양'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해양·수산 관련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상견학은 시 어업지도선을 타고 부산항 제5부두를 출발해 부산항대교, 국립해양박물관, 신선대부두를 거쳐 다시 부산항 제5부두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으로, 북항재개발 사업구역 등 부산항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핵심과제인 부울경 시·도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향후 울산시, 경상남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내 중학교는 오는 29일까지 시기와 인원을 시 수산정책과와 사전 협의한 다음,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바다가 꿈’이 해양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인력의 해양·수산 분야 진로 설계의 기회가 되기 위해 시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의 선박을 보유한 각급 기관·단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영양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열려

영양군의 안녕과 풍년 농사 기원

오도창 영양군수, “달집태우기 행사로 군민 가정마다 뜻하신 바가 술술 풀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영양군은 지난 24일(토), 우리 고유의 세시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영양문화원(원장 김경중)이 주최하고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후원한 달맞이 행사가 영양군민회관 전정에서 열렸다.

경북 북부지방에서 전승되는 군민의 소원을 기원하는 소지 올리기, 지신을 달래는 풍물 길놀이, 지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보름달이 환하게 뜬 저녁 7시

30분에 높이 8m의 달집태우기 행사를 진행하여 한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군민의 안녕과 화합,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축사를 통해 “갑진년 새해 첫 보름달이 뜬 정월대보름에 영양군민의 무사 안녕과 일 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라며 “달집태우기 행사로 군민 가정마다 뜻하신 바가 술술 풀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국가철도공단, '영주역 안전연결통로 설치' 사업비 분담 협의

철도에 단절된 휴천23동 연결,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기대

영주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영주역 안전연결통로 설치'의 사업비 분담 협의를 위해 21일 영주시청 건설과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영주역 안전연결통로 설치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길이 190m, 폭 3m의 안전연결통로가 설치되면 철도로 단절된 휴천2동과 휴천3동을 연결해 시민들과 역사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는 지난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된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당초 공사비(8.5억원) 중 10%(8.5억원)를 영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나 공사비가 138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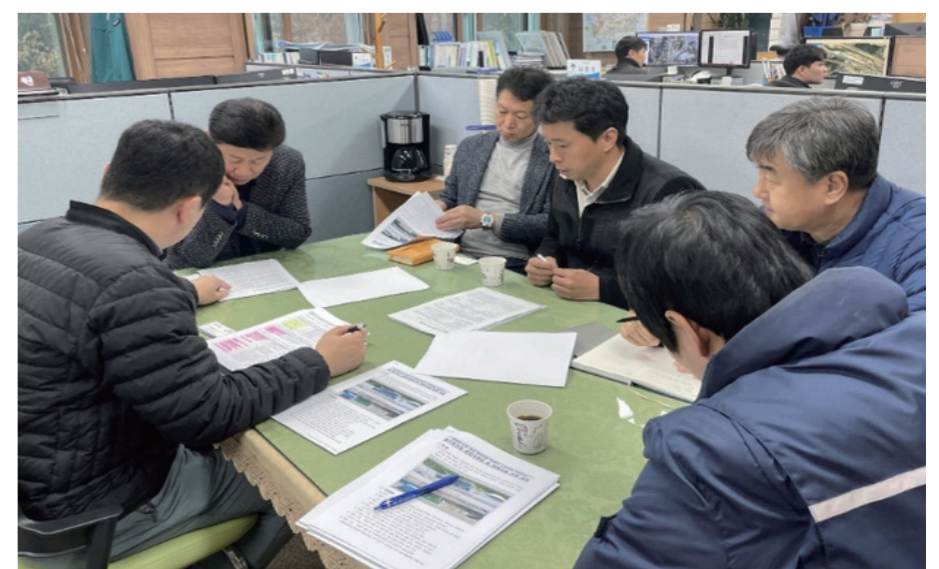
증액된 탓에 시 부담 금액이 증가하게 됐다.

이에 시는 국가철도공단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후 추가 부담분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는 3월 중 협약을 체결해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추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영주역 안전연결통로는 오는 12월 개통된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은 철도에 40년간 단절된 시가지를 연결하고 중앙선 복선 전철화로 늘어나는 철도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금정구 서1동, 찾아가는 미용실 '백투더 청춘' 운영

부산시 금정구 서1동은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용실 '백투더 청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3년 2월부터 윤찬혜 어르신회장의 전액 재능기부로 시작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관내 경로당 3개소를 월 1회씩 순회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커트와 염색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동 관계자는 “나눔을 실천해 준 이성호 원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전남도,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 박차

23일 장흥서 전남도-시군 복지정책 관계관 회의



전라남도는 23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시군 복지정책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군 복지업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변화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올해를 한층 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22개 시군과 함께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각지대가 없는 명품 복지 전남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 최대 21만 3천 원

(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사회서비스 취약 도민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행복버스는 매주 4회, 연 270개 마을을 찾아가며며 초기문진, 치매예방 게임, 문화공연, 틀니 세척, 칼갈이 등 26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 하도록 6만여 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4만 원까지 인상했다. 기초연금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5만 9천 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장애인에게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신규로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제공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 연금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다. 장애인일자리도 3천 3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힘든 근구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는 시군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 해도 전남도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 도움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이·통·반장,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시장을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보건의로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의료계 총파업 및 진료공백 대응 총력

순천시는 23일 정부가 보건의로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시는 지대본에 종합상황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구조구급지원반 등 8개 대책반을 구성해 보건소 및 유관부서와 함께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대본을 중심으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료계 총파업 및 진료공백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총파업 대응을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17일 응급의료기관 6곳(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시설 2곳)에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은 20일부터 외래 진료를 기존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지역 내 전공의 수련병원인 성가톨릭병원의 전공의 13명 중 8명(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이 22일자 무단결근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시는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3일 현재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 업무개시명령을 재발령해 복귀를 독려 중에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병·의원, 약국 등 449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휴진 의료기관은 없으며, 앞으로 대규모 휴진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럼에도 진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따라 의료기관·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시민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진료현장에 복귀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진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점검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나주시, 나주천 '교량 2곳' 재가설 ... 3월 6일부터 출입 통제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 추진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에 포함된 교량 재가설을 위해 내달 6일부터 '남내1새마을교', '남내2새마을교' 2곳 교량과 진입로 통행을 제한한다.

교량 통제에 따라 임시인도교 개통하고 우회도로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교량 통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교량은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이달 내 재가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역점 현안사업인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은 나주 원도심 시가지를 관통하는 나주천의 수질 및 생태복원을 통한 관광 명소화, 100년 빈도 홍수량 확보 등 치수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주관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유입차집관로 정비', '행정안전부 주관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된다.

2022년 12월 착공식을 가졌으며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937억원이 투입된다.

나주시는 나주천 3.36km 구간 '수생태복원', '여울형 어도 및 어류 서식처복원', '징검다리 산책로 조성' 등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연계한 도심 하천 생태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태복원과 더불어 100년 빈도 홍수량 확보를 위한 '하천 하상(약 2m) 굴착', '배수펌프장·유수지 증설', '하천교량 11곳 재가설 및 신설(2곳)'과 '노후 차집관로 개량(L=3.04km)', '호안



정비(L=3.21km)', '맨홀 및 우수도실 137개소 개량' 등도 추진 중이다.

작공 이래 2023년 3월 청동배수펌프장 구간 착공, 8월 경현동 다목적생태관광 잔디블럭 설치, 학교(교량)-영산강 합류부 구간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교량 재가설에

따른 시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인도교 안전 관리에 힘써가겠다"며 "나주천이 자연재해 예방 기능은 물론 도심과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이자 걷고 싶은 명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만/기자

강진군 한국민화뮤지엄, 청자축제 이벤트로 알차게 즐겨요

군민 무료, 관광객 입장료 50% 할인

전남 강진군 대구면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이 제52회 강진 청자축제 기간인 23일부터 3월3일까지 방문객들을 위한 여러 자체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민화뮤지엄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초의 공립 민화 전문 박물관으로서 2015년 개관 이래 강진군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로 인지도를 높여 왔다.

최근에는 상설전시 중인 유물인 '작호도'가 MBC 드라마 '밤에 피는 꽃'에 '산중백호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한국민화뮤지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기존의 입장료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경로우대와 체험패키지는 제외다. 또한, 강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기간 내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축제기간 중 관람과 민화 체험, 4D 가상체험을 모두 이용하는 코스인 '민

화 체험 패키지'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박물관 소장품 민화로 제작한 갑진년 기념 벽걸이 달력을 증정할 예정이다. 해당 이벤트는 수량이 한정되어 1인당 1개씩 증정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달력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물관 1층에서는 (주)스마트큐브의 가상현실 전시장인 월드(WILLLD) 메타버스 전시장도 만나볼 수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은 월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으며 현재 메타버스 전시장에서는 역대 한국민화뮤지엄의 다양한 특별전을 전시장 세팅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청자축제가 열릴 때마다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왔다.

한국민화뮤지엄 관계자는 "올해도 축제를 기념해 준비한 여러 혜택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 관광지로서의 강진의 위상을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남원시, 상호협력으로 상생발전의 첫발을 내디뎈다

남원시&성남시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23일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최경식 남원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서로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여 행정, 경제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으로 4차산업 및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 축제·공연 등 시민 여가문화 증대 및 관광자원 활성화, 행정 우수시책 정보교환,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시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 각각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손을 마주 잡은 결과물로서 앞으로 양 도시가 상생발전 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남원에서 멀리 성남까지 큰 걸음을 해주신 최경식 남



원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대표단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매도시 관계를 통해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 분야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경기도 대

표 경제도시인 성남시와 한 가족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양 도시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만큼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상생 관계가 활짝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재해취약지도 배포로 주민 재난대응능력 강화



전남 함평군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공간

상으로 분석하여 지도화한 '함평군 재해취약지도'를 제작·배포했다고 23일 밝

재해취약지도 책자 배부 및 주민홍보

혔다.

재해취약지도는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 및 폭설시 위험지역 등 유형별 재난위험 지역을 표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함평군은 제작된 재해지도도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며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하

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함평군은 재해취약지도를 재난 발생 시 해당 지구에 대한 신속한 정보 파악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군 재해취약지도의 지속적인 현행화 관리를 통해 부속간 유기적 협력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코레일 목포역 신축 설계공모 착수에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

기존 역사면적 대비 76% 대폭 확대된 규모로 사업 추진

목포시는 목포역이 1978년에 지상역사로 건축된 이후 46년만에 선상역사로 새롭게 신축되기 위한 코레일의 목포역 신축사업('호남선 목포역 시설개선 사업') 설계공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목포역 신축 설계공모는 지난 21일 시행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8일 작품심사를 거쳐 같은 달 31일 당선작이 결정된다.

당선작은 개별토목되고, 관심있는 경우 오는 6월 3일 한국철도공사의 작품 전시 기간에 당선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선작 선정 후 15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0만549m², 사업면적 4,231.8m² 내외이며 설계공모 과정에서 선상역사 규모(2~3층)가 결정된다. 총 사업비는 490억원(국토교통부 40%, 한국철도공사 60%) 규모로 추정공사비 345억5백만원, 추정 설계비 24억5천4백만원이며, 기타 부대 공사 등은 별도 발주로 추진된다.

시는 그동안 목포역 신축과 철도시설재배치 사업의 타당성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도와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국회, 한국철도공사 등을 수시 방문해 역사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목포역 이용객이 일평균 7,000여명, 주말 평균 1만여명으로 타역사 대비 1인당 대합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협소한 현재 상황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및 남해선 철도건설사업 등 미래 수요가 반영되어 지난해

말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신축 규모는 기존 지상역사를 철거하고 신축 역사를 선로 위에 짓는 선상역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맞이방, 콘코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승객서비스 공간을 비롯한 역무·수송·지원 시설이 확대되어 사업면적이 2,404.0m²에서 4,231.8m²로 기존대비 76% 대폭 확대된 규모이다.

시는 목포역 신축사업과 함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원도심의 상업·교통·정주 여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목포의 품격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배 목포시장은 "새롭게 건축될 목포역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열차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포역이 미래뿐만 아니라 목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사업이 로드맵대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신안군, 2024년 첫 교육프로그램, 저녁노을미술관에서 민화와 문인화 만나요!

작가와 함께하는 민화, 문인화 교실 3월 개강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2024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생활속 예술-민화 그리기'와 '우암 박용규-문인화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생활속 예술-민화 그리기' 주말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3월 9일(토)부터 4월 27일 토요일 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차 진행된다. 성인 1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수업방식은 1대 1 지도를 통해 전통 채색화의 기초를 배우고 모란, 문자도를 그리 예정이다. 수업을 이끈 조성미 작가는 목포 민화연구회 1004 책방에서 출강 중이다.

'우암 박용규-문인화 교실' 평일 교육프로그램은 3월 13일(수)부터 12월 18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연간 진행한다. 성인 5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나 수업재료는 개별로 준비해야

한다. 문인화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다. 한편, 수업을 이끌 박용규 작가는 2012년에 저녁노을미술관에 작품 169점을 기증하였으며 현재 상설 전시 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화의 아름다움과 전통미술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신안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 까지 6일간으로, 신안군민을 대상으로 우선 모집한다. 전화(061-240-5441) 또는 카카오톡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을 검색 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더 많은 프로그램 소식은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진/기자

Advertisement for 'Life in Art' (생활속 예술) featuring 'Minhwa and文人Hwa' (민화와 문인화) classes. Includes dates (2024.03.09 - 04.27), location (저녁노을미술관 교육실), and contact info (061-240-5441).

전북도·시군, 보건의료정책 발굴 머리 맞대

21일, 도·시군·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등 40여명 참석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비 등 논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전북 지역보건기관 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 보건관련 3개 과장(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과 시·군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의료정책 발굴과 확대 등 새로운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도와 시군 간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기관 운영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추어 보다 나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

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도에서는 최근 정부의 의대중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보건소·공공의료기관 연장 진료, 비대면진료 확대, 파견 지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올해 추진되는 보건의료,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3개분야의 사업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힘을 모았다.

시·군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신규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장수, 부안)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장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군산) 등을 건의하며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전북 지역보건기

관 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취약지 원격진료사업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개선(소득기준 폐지), 지하수 사용업체 노로바이러스 선별검사 시행 등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회로 삼아 그동안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왔던 중앙부처의 관행과 제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발굴 과감한 시험과 도전을 시도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분과별 TF팀을 꾸려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료현안들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더불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도 철저히 수립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는 등 의료대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봄의 시작! 제44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개최"

3월 11일~13일...야간 콘텐츠와 사랑의 선발대회 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 라는 주제로 제44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는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바닷길 체험과 진도만의 민속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군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축제 준비에 나섰다.

특히 바닷길 햇불 행진과 복합매체(멀티 미디어) 레이저 구경거리(쇼)를 신규 개발해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에 걸맞은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 볼거리와 체험부스 등을 확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3월 11일 개막식에는 진도 출신 국민가수 송가인씨가 특별출연하고 12일에는 전국노래자랑 녹화방송을 행사장 일원인 가계 특설무대에 마련해 전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바닷길 만남 44쌍의 '견우와 직녀' 사랑의 선발대회와 뽕머리 선발대회를 진행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야간 콘텐츠인 바닷길 야간 경관조명과 복합 매체(멀티 미디어) 레이저 구경거리(쇼)와 함께 가계해수욕장 해변에 에어돔 등 피크닉 존을 조성해

쾌적한 축제장이 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더 알차고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만족할 만한 축제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민선 8기 제10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

제안된 안전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완도군은 2월 23일 해양치유센터에서 도내 22개 지자체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10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는 협의회장인 박우량 신안군수의 인사말, 신우철 완도군수 및 허궁희 완도군의회의 의장 환영사에 이어 기념품 전달, 해양치유 홍보 영상 상영 및 특수 시책 사례 발표, 정책 건의 사항 의결 및 시·군간 현안 소통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사회 복지 분야 보조사업 대비 보조율 상향 지원, 약취 미원 대응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등 13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제안된 안건을 전라남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특수 시책 사례로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완도군에 지난 2015년부터 미래 생



장 동력 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해 왔으며, 정례회가 열린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건립되어 지난해 11월 개관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치유산

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세달여 만에 무려 1만 5천여 명이 다녀가며 명실상부 해양치유산업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위기에 기회가 있고, 전남은 지역마다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기에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여 살기 좋은 전남을 이룩하자"라고 밝혔다.

양영울/기자

보성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보상

보성군은 2024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성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록 등 등록장애인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

자(대인, 대물)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사고당 개인은 자기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보험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차별 없이 든든한 복지 보성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원영/기자

Advertisement for 'Boongsong County Disabled Electric Assistive Device Insurance'. Includes details on coverage (accident compensation up to 30 million KRW), application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

강원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 도·시군 합동 연찬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 2. 22~23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 2024 도·시군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동균 지역도시과장을 비롯한 18개 시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담당 과장(팀장)과 실무자 80여명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강원특별

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도 및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찬회 주요 내용으로는 첫 날 도시계획 분야 교육으로 ①현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최혁재 위원(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토계획법과 도

시·군계획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국토계획법 전반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이어 두 번째 강연은 국토계획법 해설집을 발간한 ②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안운상 사무관이 "국토모니터링과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이해"라는 제목 강의를 했다.

이튿날은 도시개발 분야 교육으로 ③도 지역도시과 도시개발팀 김주영 주무관이 "도시개발 사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김동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도시과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는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도 가장 밀접한 부분이지만, 관련 법령(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실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호철/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효도·보훈 시정으로 어르신 행복한 도시 만들 것"

(사)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2024 정기총회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은 23일 평생학습관 아산아트홀에서 열린 '2024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경로당 회장 등 지역 어르신 550여 명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강춘식 충남연합회장, 오지석 아산시 지회장,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안정현 충남도의원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박경귀 시장은 축사에서 "아산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 '효도시정'을 시정의 근간으로 삼고, '효도시정 종합계획'을 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독거 어르신 안전을 위한 '금빛어르신 돌봄미담 운영,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대학 및 노

인교실 운영,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 어르신 일자리 지원 정책,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확대 지원 등 아산시 주요 어르신 복지시책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아산시는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산에서 시작된 '효도시정'이 잘 뿌리내려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석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장은 "언제나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주고 계신 아산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부지회장 임·면권 위임의 건 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경기도와 '베이벨리 12개 협력사업' 논의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 참석...충선 후 공동비전 선포 준비 착착



충남도와 경기도 사이 아산만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베이벨리' 건설사업이 골격을 드러내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가 최근 대한민국 신 경제산업지도 작성 돌입을 안팎에 천명하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와 함께 추진할 12개 사업을 논의했다.

도와 경기도는 22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부부지사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벨리 공동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오 부지사와 함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공간전략과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 베이벨리에 대한 관심과 성공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보고회는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그동안 논의한 12개 협력사업을 보고하고, 토론을 가진 뒤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양 도 연구원이 제시한 12개 협력 사

업을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탄소중립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제3서해안고속도로 추진, 베이벨리 순환철도 수도권 확장 건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 및 GTX-C 확장, 항만물류 클러스터 및 배후단지 개발, 서해안 마리나항만 네트워크 연결, 체류형 관광레저 거점, 골드코스트 명품가도 건설, 서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벨트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역세권 연계 글로벌 스마트 캠퍼스 조성 등이다.

이 중 특히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차 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경기도는 수소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를, 충남은 자율주행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또 서해안권 탄소중립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베이벨리에 집적된 수소 수요와 항만 등 공급 인프라를 바탕으로, 당진·평택시를 대한민국 수소 생산·공급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이를 위해 양 도는 당진·평택 수소특화단지 공동 지정과 수소도시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양 도는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협력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충선 이후에는 선포식을 통해 베이벨리 공동 비전을 공표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접경지인 아산만은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50년,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베이벨리 건설 사업 추진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는 삼성반도체, 현대차, 기아차 등 세계적 기업과 평택당진항이 있는 글로벌 경제권의 요충지"라며 "경기도와 충남도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하고, 도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면 베이벨리가 대한민국 4차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벨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초광역·초대형 사업이다.

2050년까지 33조 원을 투입, 2020년 기준 세계 55위 국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P)을 30위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GRDP는 20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엘지(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태백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접수

태백시는 오는 26일부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월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

득 60%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은 1차와 달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유상근/기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신청대상: 19~34세 청년(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액: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원주시역사박물관,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특별전 '푸른 꿈의 비상, 龍' 기획전시 개최

2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공간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2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특별전 《푸른 꿈의 비상, 龍》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예부터 우리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상서로운 동물로 함께 해온 용의 문화적 상징성을 재조명한다.

용의 다양한 형상과 의미를 담고 있는 원주시역사박물관 소장유물과 원주지역 대표적인 설화(說話) 중 '원주 구룡사'와 '며느리봉과 용터지기' 전설 등 용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원주역사그림공모전 수상작품 총 40여 점을 소개한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칠화칠기 작품과 원주지역 서양화 1세대 화가 원평 이재걸의 그림작품을 통해 현재까지

도 이어지는 용의 상징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시는 여의주를 쥐고 하얀 구름 위로 비상하는 용을 표현한 작은 포도존을 마련했으며, 3·4월에는 각 1회씩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복을 가져다주는 갑진년 청룡 모루인형 만들기 체험'인 관람객 참여형 전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역사박물관 관계자는 "하늘로 비상하는 힘찬 청룡의 기운을 받아 꿈꾸는 모든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다양한 체험과 함께 용에 대한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눌 수 있는 이번 기획전시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특별전

푸른 꿈의 비상, 龍

2024.2.27 ~ 5.12

원주시역사박물관

“산림” 조합을 알면 “산림”이 좋아집니다.

조합원 가입 자격

-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출자금 납부 : 20좌 이상 (1좌 : 5,000원, 최대 10,000좌)

대리경영지도

직접 경영이 어려운 산주를 대신하여
조림, 육림, 생산 등 일체의
산림경영을 산림조합이 대신 해드립니다.
산림조합을 방문하시면 산림경영 전담지도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영양군산림조합
054)682-8475-7

SJ영양군산림조합

성북구, 의료재난 위기 '심각'...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선제적 격상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 성북구가 23일부터 기존 성북구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23일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난 위기에 '심각' 경보를 내린 상황에서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했던 성북구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운영,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대응인력 구성 등 구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였다.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에 따라 구는 23일 16시에 구청장 주재로 성북구보건소 및 구 간부가 함께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확대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상황중료시까지 운영한다. 재난상황관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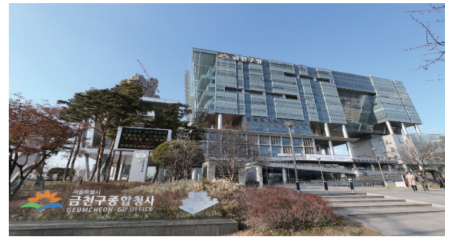
의료및방역서비스반, 재난수습홍보반 등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주요 역할은 정부 협조체계 유지, 동향 파악 및 의사 집단행동 동향 파악 및 대외 소통, 홍보 등이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지난 6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내에서 의료계 집단 행동을 대비하고 대응한다. 역시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한다. 보건소 진료시간도 평일 20시까지 연장해 응급의료체계의 유지와 진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했다. 상황에 따라 소방 및 경찰 그리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관련 회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의 격상 사실을 알리며 "성북구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실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성북구 공직자 모두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 E-GEN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선 안내는 다산콜센터(120),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콜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사회복지무요원 심리 프로그램 '나와 마주보기' 운영

심리검사(성격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 등)와 개별상담으로 구성

금천구는 관내 사회복지무요원을 대상으로 심리 프로그램 '나와 마주보기'를 심리상담 마음 '심'(새움병원 별관, 시흥대로 449)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기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건강한 사회일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사회복지무요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운영하며 2회의 심리검사와 1회의 개별상담으로 진행된다. 심리검사는 ▲ 기질 및 성격검사 ▲ 다면적 인성검사 ▲ 직업 적성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 심층분



석과 1:1 맞춤형 상담을 받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회복지무요원들의 건강한 자아 형성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향신/기자

광진구,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 운영

21일, 서울시민안전체험관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 맺어

광진구가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장을 운영한다. 급성 심정지 발생률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6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심정지 발생 시, 혈액 공급이 4~5분만 중단되어도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 21일 서울시민안전체험관(관장 최성범)과 체계적인 심폐

소생술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광나루안전체험관' 및 '광진구보건소'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체험 교육은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응급처치 교육 등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후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광나루안전체험관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1시간씩 교육을 진행하며, 광

진구보건소에서는 매주 1회 2시간씩 진행한다. 구는 상반기 중 지역재난의료대응 전담 인력을 1명 채용해, 광진청소년센터에 교육장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광진구청 보건의로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3배 이상 높아진다"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4분의 기적, 구민이 구민을 살리는 건강도시 광진'을 비전으로 삼고, 관내 사업장 근로자 및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매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강성원/기자



서울 중구,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대 운영

오는 2월부터 기존 37개소에서 올해 27개소 늘려 총 64개소로 확대 운영

서울 중구가 오는 2월부터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37개소에서 올해 27개소를 늘려 총 64개소가 된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장소는 △층무로역 △회현역 △청구역사거리 부근 등 관내 주요 역세권과 주민 보행 거점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서도 시야 방해 없이 보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홍보 효과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는 구정 시책이나 행사 등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한다.

구는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현수막을 정돈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관내 37개소에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시범 설치했다. 이후 지자체·공공기관의 이용 요청이 많아 현수막 게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게시대는 작년에 설치된 것과 같은 '저단형'이다. 저단형 게시대는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1m가량으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하다.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려 탈락할 위험 또한 적다. 공공 현수막 게시대에 걸리는 현수막의 완성도에도 공을 들였다. 관내 게시되는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

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 2.0'을 제작했다. 홍보 내용에 따라 디자인 타입을 세분화한 표준안 디자인을 다양하게 제공해 용도에 맞춰 활용할 수 있게 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지난해 다시 법이 개정되며 일부 제약은 생겼지만 현수막 난립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문제다. 이에 구는 공공기관에서 게재하는 현수막 게시부터 정립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구성 홍보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길고양이와 공존 위한 중성화사업 실시

서울 서초구가 사람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달 19일부터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주택가의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며, 수술한 고양이에겐 개체 확인 표시를 하고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친 뒤,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하게 된다. 다만 2kg 미만 고양이, 임신모 및 수유모는 동물복지자를 고려해 중성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훼손 등의 주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5일, 공개모집을 통해 자원봉사자 총 5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길

고양이 포획·방사 및 공식지정된 급식소의 청결관리 업무 등 방사 후 모니터링까지 맡는다. 구는 중성화수술을 위해 관내 동물병원 2곳(한동물병원, 내방동물병원)과 지정협약을 체결해 지원하고 있다. 구는 자원봉사자 전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과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침 및 주의사항' 등을 책자로 제공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 활동 준비를 마쳤다. 또한 자원봉사자 전원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했으며, 고양이를 위한 사료 106kg과 담요 53장도 기부를 받아 후원식을 갖는 등 훈훈한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구는 중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정하여 총 36개소를 운영중이다. 또한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길고양이 겨울집

마련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겨울집 200곳을 제작했고, 2022년~2023년에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한파에 취약한 길고양이들이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온 물그릇 100개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되는 동물 없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복지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Z O M

영양군
YEONGYANG-GUN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천년전부터 이어온 옛길, 영남의 숨겨진 아름다움

물

영남의 아름다움, 영남의 정취를 만끽하는 곳

빛

천년전부터 이어온 영남의 아름다움, 영남의 정취를 만끽하는 곳

맛

사백년 전통의 대가, 장제왕의 음식문화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영남, 영남의 정취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으로 오세요

강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참벽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신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남국립박물관, 영남자연과학관, 영남생태공원, 영남고추추출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남풍력발전단지, 홍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이천쌀문화축제, 2024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

이천시가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년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축제와 국가 이미지 개선과 지역의 유·무형 콘텐츠 개발로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들을 선정 및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 수상은 이천쌀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농경문화를 대중놀이로 특색화시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뜨거운 성원과 안전사고 없는 축제,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등 큰 성과를 낸 점이 대상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쌀문화축제가 지역문화매력 100선(로컬 100), 2024년 경기관광축제 선정에 이어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이천쌀문화축



제를 지역상생과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농경문화 대표축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3회 이천쌀

문화축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서 개최된다. 김범상/기자

의정부과학도서관, 경기 북부 최초 제56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의정부시는 2월 2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제56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과학도서관이 경기 북부 최초로 '한국도서관상(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서관상은 국내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표창해 그 공로를 치하하고, 도서관 사업 발전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1969년 제정해 시상해 온 도서관계의 권위 있는 상이다.

의정부과학도서관은 2007년 경기 북부 최초 천문우주 및 과학기술 분야 기반 시설을 토대로 개관했다. 천문우주에 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의정부 과학축제와 경기.의정부 과학축전,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어린이과학체험실 및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책을 주제로 소통하는 열린 문화 감성 공간으로의 변화 시도, 지역사회와 교육 협력체계 구축,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를 통한 언제 어디서

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환경 조성,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국 최초 상호대차 시스템(의정부N하 나로 통합도서관) 구축,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도모한 '공공도서관-서점 멤버십 포인트제' 도입 등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영애 도서관과장은 "이번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계기로 의정부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도서관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해남군 "새봄, 새김치로 상큼하게 봄맞이 하세요"

봄을 재촉하는 이슬비가 촉촉이 내린 가운데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에서 '새봄, 새김치 담그기 축제'가 열렸다.

김치냉장고 등이 흔하지 않던 시절, 남도지방에서는 김장김치가 시어질 무렵 겨울배추를 만든 새김치로 잃어

버린 입맛을 되찾고 신선한 봄맞이 밥상을 장만했다.

논보라 속에서 월동을 하고, 한겨울에 수확하는 겨울배추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달고 고소한 맛이 강해지고, 미네랄도 풍부해진다. 특히 아삭한 식감이 일품으로, 신선하고

상큼하게 봄 기운을 충전하고 싶은 봄맞이 음식으로 제격이다.

해남겨울배추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 제11호로,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최갑문/기자

안양시, 안양춤축제 4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 선정

최대호 시장 "올해도 춤·안양의 특색 어우러진 대표 관광축제로 개최할 것"

안양시민축제인 '안양춤축제'가 4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 선정됐다.

안양시는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안양춤축제의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전수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지난 축제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오는 9월 다시 한번 성공적인 안양춤축제 개최를 다짐했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축제 관련 전문 심사위원들이 축제의 독창성과 발전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안양춤축제는 선정 분야 ▲축제 글로벌 명품 ▲축제 예술·전통 ▲축제 관광 ▲축제 경제 ▲축제 콘텐츠 ▲축제 프로그램 특별상 등 6개 분야 중 축제 예술·전통 분야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지난해 안양시민축제를 춤을 주제로 하는 안양춤축제로 변경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관광형 축제로 확대했다.

지난해 9월 20~24일까지 5일간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댄스경연, 랜덤플레이댄스, 댄스버스킹(거리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17만2천여명이 축제에 참여 및 방문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춤축제는 안양시민이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축제"라며 "올해도 시민들과 함께 안양춤축제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과 '안양의 특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축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준비하고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통영시, 에헤라디아! 흥겨운 정월대보름

제37회 시장기타기 통영전통연날리기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 개최

2024년 올해 첫 갑진년 정월대보름 날을 맞아 23일 한산대첩광장에서 통영문화원(원장 김일룡)이 주관하는 '제37회 시장기타기 통영전통연날리기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300년 통영역사 속에서 유래한 전통적 감수성과 친취적이고 호방한 통영인의 기질 덕분에 통영사람들의 연날리기 기술은 예부터 전국에서 으뜸이라 했다. 따라서 지역의 고유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범시민적 화합과 통합의 의미에서 개최된 경연대회는 통영의 전통문화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음세대로 계승하는 민속축제의 한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적인 정월대보름 놀이인 연날리기와 윷놀이, 제기차기대회가 읍면동 대항전으로 진행되어 연날리기는 단체전 1위 명정동, 2위 봉평동, 3위 무전동, 장려 용남면, 윷놀이는 1위 중앙동, 2위 용남면, 3위 산양읍, 장려 명정동, 제기차기대회는 1위 중앙동, 2위 도산면, 3위 북산동, 장려 무전동순으로 성적을 거뒀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통영서도회가 주관하는 '가훈씨주기' 행사를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해 딱지치기, 비석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과 같은 민속놀이 체험행사도 열려 남녀노



소 즐길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김일룡 문화원장은 대회를 통해 "오늘 행사가 전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의 맥락이 연날리기를 비롯한 각종 민속놀이를 즐기며 경쟁하는 가운데 이웃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공동체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전국 최고급 멜론 세지 멜론

NAJU 나주시
NAJU CITY

서울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가동

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등 6개 실무반 구성해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보호 총력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2월 23일 오전 8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

난대응기구로서 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총 6개 실무반으로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1부시장) 주재로 보건·의료정책과, 재난안전정책과 등 유관부서, 2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상황 및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자치구,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자치구, 시립병원·민간병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재난위기경보 '심각'...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장 본부장으로 비상대응체계 강화...행정부시장 주재 자치구와 긴급회의

광주광역시는 23일 오전 8시부로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안전실 주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고광안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사회재난과, 공공보건의료과 등 유관부서 및 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결정 및 의사 집단행동 상황,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됨에 따라 광주시 사회재난과는 재난상황을 총괄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과는 비상진료대책 상황반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 추진, 구조구급과는 응급환자이송 등 비상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공공병원·보건소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운영, 필수의료과목 중심의 단계적 진료체계 전환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의료재난 긴급 대응 총력

중증환자 응급 의료체계 유지·보건소 진료시간 연장...시민 불편 최소화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3일 오전 8시부터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 부시장을 차장, 통제관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비상진료대책반, 총괄지원반, 주민소통반 등 5개 반 12팀으로 편성해 심각 단계에 대응한다.

시는 이날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 주재로 부천시보건소,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유관부서와 긴급회의

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상황과 비상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부천시는 현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부천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망 등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증 환자 응급 의료체계 유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운영 ▲진료 공백·환자 불편 최소화해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야간진료와 필수진료과목 의료기관을 파악해 시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부천시 관내 보건소 3곳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송재환 부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 만큼 상황을 빈틈없이 살피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의료·유관기관 협력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동일/기자



경남도, 부족한 산업인력 확충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재편

성과 분석을 통한 고용 환경 변화 대응 일자리 사업 전환 추진

경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2024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만림 행정부지사 주재로 청년, 여성, 신중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일자리 추진 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일자리 추진 성과와 개선사항 도출, 올해 사업 추진 방향 공유,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 연계 사업추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남도는 올해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지원을 강화하여 ▲산업인력수급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미래산업 일자리 확대 ▲민간주도 일자리 확대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일자리정책 역량 강화를 6대 핵심 전략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21개 중점 추진과제와 분야별로 226개 일자리 사업에 2조 1,463억 원을 투입하여, 18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산업 인력난에 따른 대책으로, 일자리 사업을 산업인력 수급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재편하여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매칭에 주력하고, 미래산업 인재 양성과 산업기반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로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보완하는 등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산업현장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부족한 산업현장의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분야별 사업을 재편하고, 일자리사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재현/기자

의료 공백 대비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3일 긴급회의...관내 의료기관 현황 파악·비상의료체계 점검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정부의 보건·의료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전공의의 대규모 병원 이탈 등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하고 보건복지국, 시민안전실과 긴급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상황 및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로서 상황총괄반, 의료서비스지원반, 구급지원반 등 총 5개 실무

반으로 구성·운영한다.

현재까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관내 의료기관(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에서의 의료 공백은 없는 상태로, 관내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다행히 현재 세종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 공백은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제52회 강진 청자 축제

2024. FRI-SUN 2.23.-3.3.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미스트롯3' 배아현, '잃어버린 30년' 레전드 무대 TOP10 진출...장윤정 "노래로 재벌 될 것"

'미스트롯3' 배아현이 '미스트롯3' TOP10에 진출했다. 배아현은 지난 22일 방송된 TV CHOSUN '미스트롯3'에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TOP10 진출에 성공했다. 앞선 5라운드 1차전에서 복지는과 라이벌 매치를 펼친 배아현은 최고 점수를 받으며 1차전 1위를 차지했다. 이후 2차전 개인 무대에서 배아현은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을 선곡했다. 배아현은 "민족의 한이 정말 많이 남긴 노래다. 이 한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다"며 "1차전 1등이니 끝까지 열심히 해서 그 자리 놓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진 '잃어버린 30년' 무대에서 배아현은 첫 소절부터 가슴 저릿한 감성을 전했고, 절절한 감성 꺾기로 깊은 전통의 맛을 보여줬다. 이에 출연자들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게 진짜 트로트다", "전설의 무대"라며 감탄했다. 무대 후 박칼린은 "갑자기 몇십 년의 생각이 소용돌이치게 해 줬다"며 "음악

의 힘이 그런 것 같다. 깔끔하게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것"이라고 평했다. 김연우는 "30여 년 동안 노래하면서 배아현 씨 같이 노래하는 분 처음 봤다. 첫 무대부터 계속 봤는데 단 한 음절도 음이 벗어나지 않는다"며 절대음감이냐고 물었다. 또 "시인가? 너무 정확하게 부르는데 감정 표현까지 놓치지 않아 지금까지 신기한 가수"라고 덧붙혔다. 장윤정은 "귀가 호강해서 기분이 좋다. 배아현 씨의 방어전이지 않나. 1위를 달리고 있으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 더 꺾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절제를 잘하더라"며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다. 배아현 씨는 노래로 재벌 되게 생겼다"고 칭찬했다. 배아현은 심사위원 점수 1100점 만점에 1080점을 받으며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깼다. 그 결과, 배아현은 최종 2382점으로 2위를 기록하며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배아현은 '미스트롯3'에서 '조

악물 사랑', '모란동백', '애가 타' 등의 무대로 호평을 받고 있다. 매 무대마다 독보적인 음색과 가창력으로 극찬을 이끌어내며 우승 후보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만식/기자

'고려거란전쟁' 현종(김동준), 박진(이재용) 정체 알았다! 내부 반란 일으킨 역도들에 반격 시작할까?

이재용의 정체를 알게 된 김동준이 반격을 시작한다.

오는 24일 토요일 밤 9시 15분 방송되는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극본 이정우/ 연출 전우성, 김한솔, 서용수/ 제작 몬스터유니온, 비브스튜디오스) 27회에서 현종(김동준 분)은 내부 반란에 이어 거란의 친조 재요청까지 받는 등 위기에 직면한다.

앞서 김훈(류성현 분)과 최철(주석태 분)은 군사들과 함께 반란을 결행해 황실을 혼란에 빠트렸다.

박진(이재용 분)을 등에 업고 더욱 기고만장해진 최철은 상참(상참에 참여한 상참관의 약칭) 이상의 무관들에게 문관을 겸직하게 해달라는 등 조정의 기구 개편까지 요구했다.

특히 박진의 정체를 알게 된 강감찬(최수종 분)이 당장 그를 추포하라고 명령, 통쾌한 한방을 날렸다.

현종은 무관들의 반란을 중용한 박진이 자신을 시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최사위(박유승 분)와 유진(조희봉 분)은 역도들을 조정한 박진을 처벌해 달라고 청했다.

23일(오늘) 공개된 스틸에는 심각한 분위기 속 박진의 추포 소식을 접한 현종과 최사위, 유진이 그의 처벌을 놓고 논의 중인 모습이 담겨 있다.

최사위는 박진의 대역죄를 밝혀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유진 역시 역도들에 반격을 가할 절호의 기회라고 현종을 설득한다. 분노에 찬 현종은 혼란에 빠진 고려를 안정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

그런가 하면 거란은 사신을 보내고



려 황제의 친조를 재요청한다. 현종의 의중을 확인한 사신은 거란의 대군이 압록강에 집결해 있다고 공포감을 형성, 또 한번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임박해 왔음을 암시한다.

내부 분열에 이어 앞친 데 뒷친 격으로 거란까지 고려를 침략하려 하자 현종은 깊은 상심에 빠진다.

이에 강감찬은 현종을 찾아가 진심 어린 충언을 건네고, 현종은 그런 강감

찬의 현실적인 직언에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는다고 하는데. 과연 현종이 역도들을 처단하고 위기에 놓인 고려의 운명을 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27회는 내일(24일) 토요일 밤 9시 15분 방송된다.

최광수/기자

홍상수 감독 31번째 장편영화 '여행자의 필요', 베를린 월드 프리미어 상영 직후 외신평 공개



베를린국제영화제에 5년 연속 공식 초청된 홍상수 감독의 신작,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영화 '여행자의 필요'가 2월 19일 오후 10시 경쟁부문 월드 프리미어 상영을 통해 공개됐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이자벨 위페르, 권해효, 조윤희, 김승윤, 하성국 등 '여행자의 필요'팀은 프리미어 상영에 앞서 포토콜, 프레스 컨퍼런스, 레드 카펫 등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제목: 여행자의 필요 (A traveler's needs) | 제작/각본/감독/촬영/편집/음악: 홍상수 | 제작실장: 김민희 | 출연: 이자벨 위페르, 이해영, 권해효, 조윤희, 하성국, 김승윤 등 | 국내배급: (주)영화제작전문사, 콘텐츠판다 | 해외배급: (주)화인켈] 다음은 '여행자의 필요' 베를린 프리미어 상영 직후 외신평이다. "홍상수의 '여행자의 필요'는 최근 몇

년 간 나온 그의 작품 중 가장 재미있는 작품으로, 신선한 공기처럼 당신을 스쳐가는 영화이다." Rory O'Connor (The Film Stage) "모든 샷에서 홍상수가 드러나는 영화다-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영화가 있었든가?-그러나 다른 작품들 보다 더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매력적인 작품 중 하나."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다." 홍상수의 팬들은 영화 안 이 문장이 감독에게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묘하게 같아 보이는 길이라 여겨질 때조차도. 이 영화의 새로움은 미묘하며, 부드럽게 당혹스럽고, 그러면서 정말 큰 만족감을 준다." Jonathan Romney (Screen Daily) "이자벨 위페르는 홍상수의 작품에

서 즐거움을 주는 떠돌이 인물을 통해 그녀가 위대한 코미디 연기자 중 한 명임을 증명했다. 이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가장 드러내놓고 웃기는 영화 중 하나이다. ...그냥 그녀가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David Jenkins (Little White Lies)

"홍상수 작가/감독의 너무나 즐겁게 미칠 듯이 웃기는, 그러면서 확실하게 신비로운 '여행자의 필요'는 감독과 배우의 세 번째 협업으로 그 세 작품 중 확실하게 최고의 작품이다."

Robert Daniels (RogerEbert.com)

"동시에 이상하면서 독창적이고, 웃기면서도 건조하다."

Marc Cassivi (La Presse)

"이자벨 위페르가 빛나고 있는 실존적이고 시적인 환상물."

Nicolas Bardot (Le Polyester)

"홍상수와 이자벨 위페르가 재치하여 바람이 부는, 수수께끼 같은 오후의 산책을 떠난다. 위페르의 사랑스럽게 모자란 듯 보이는, 무심한 듯 보이는 연기가 영화의 진행에 편안한 친숙함의 장막을 제공한다.... '여행자의 필요'는 지칠 줄 모르는 이 한국 작가의 장난기 섞인 불가해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화이다."

Guy Lodge (Variety)

한편 '여행자의 필요'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상영 이후 국내에서 올해 4월 25일 개봉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연애남매' 남매 중단 한 명만 데이트 가능...혈육? or 사랑? 극과 극 남매 타입 담은 2차 티저 공개!

비현실 남매와 현실 남매가 공존하는 '연애남매'의 2차 티저 영상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오는 3월 1일(금) 첫 방송될 JTBC X 웨이브(Wavve) 예능 '연애남매'(연출 이진주)는 남매들이 모여 서로의 연인을 찾아가는 가족 참견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앞서 남매 출연진들의 얼굴이 공개돼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연애남매' 속 극과 극 남매 타입을 담은 2차 티저 영상이 물음표를 키우고 있다. '이곳에는 두 종류의 남매가 있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된 티저 영상은 시험대에 오른 남매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속소에 모인 K-남매들에게 "남매 중단 한 명만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라는 미션이 주어지면서 혈육과 사랑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 출연자 중 일부는 자신보다는 혈육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며 돈독한 우애를 자랑해 훈훈함을 자아낸다. 반면 누군가는 혈육과 눈만 마주쳐도 티격태격하며 결단코 양보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 등 그야말로 현실 남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 한 자리에 모인 남매들의 대비가 흥미를 돋우고 있다.

이에 사랑과 혈육 사이 깊은 고민에 빠진 남매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가족의 연애 노선 역시 바뀔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만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K-남매들의 앞날에 이목이 쏠린다.

이처럼 '연애남매'는 티저 영상을 통해 국내 최초 남매 연애 리얼리티라는 특색을 살려 오직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신선한 미션의 도입을 예고하며 도파민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다.

미션이 진행되는 동안 혈육들은 피와 살이 되는 연애 조언으로 로맨스의 큐피드가 되어주는 동시에 빌런이 되어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발한다고 해 호기심이 치솟는다.

다양한 유형의 남매들이 총출동해 새로운 인연을 맺어갈 JTBC X 웨이브 예능 '연애남매'는 3월 1일(금)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되며 OTT는 웨이브를 통해 독점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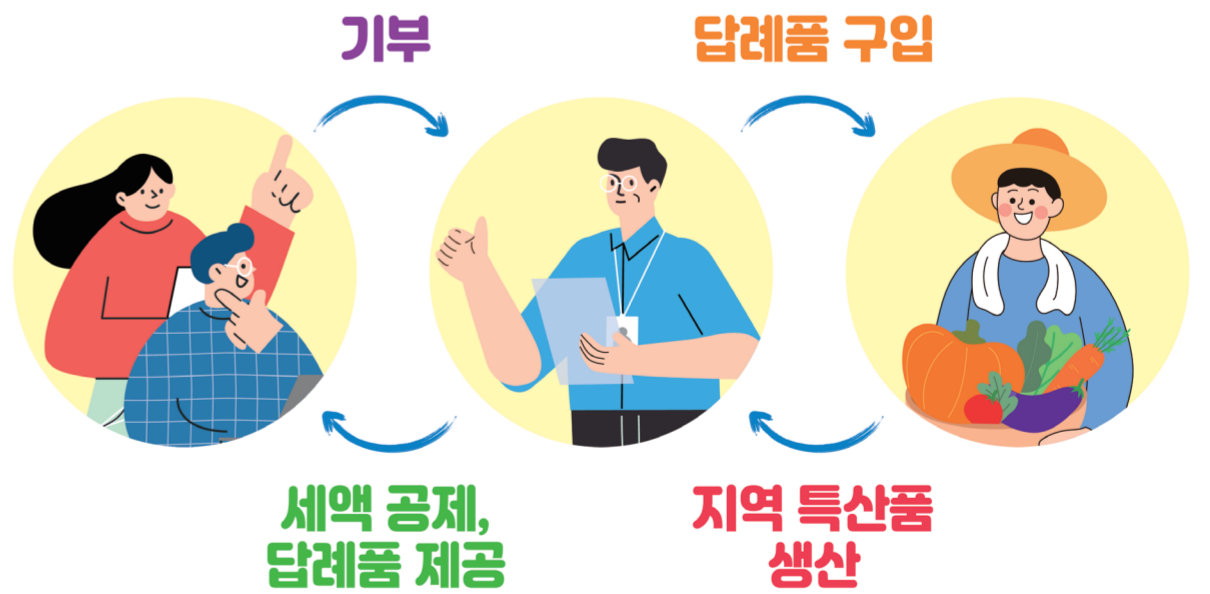
더불어 일본에서는 Hulu Japan, 동남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는 아시아 최대 범지역 OTT 플랫폼 Viu(뷰), 대만에서는 friDay Video, iQIYI, LINE TV, 미주, 유럽 및 오세아니아에서는 KOCOWA+를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경북교육청,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향상으로 학생 집중지원 박차

기초국어, 기초수학 지도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전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임종식 교육감, “앞으로도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에 관한 우수한 사례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코모도 호텔 경주에서 기초학력 전담 교사 57명과 희망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학력 전담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 부진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효율적인 학습코칭, 상담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정규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하여 수업 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전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병룡 나사렛대학교 교수의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안’의 특강과 강민경 언어학습연구소 소장의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쓰기 특성과 지도의 기본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그리고 2년간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용했던 포항대흥초등학교 홍미영

교사의 사례 나눔을 통해 기초학력 전담 교사의 한 해 삶이와 담임교사와의 효율적인 소통 방법 등에 대한 사례 발표도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초학력 심화 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기별 1회 이상 연수와 사례 나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4년 동안 운영되면서 지도 전문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과와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에 관한 우수한 사례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교육지원청,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종합점검 실시

경주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개학을 맞아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2일 신학기대비 학교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총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먼저 학교 자체점검을 실시해 취약점을 파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을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협의해 경미한 사항은 개학전까지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중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 후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권대훈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역사를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따뜻한 경주교육 실현을 위한 시작”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홍해서부초, 2024학년도 학생 자치의 씨앗을 뿌리다



홍해서부초는 지난 21일(금), 2024학년도 학생 자치 운영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5~6학년을 대상으로 자치 캠프를 실시하였다.

경북미래학교 운영 내용의 일환인 전교생 한자리 모임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꿈이와 부이꿈이인 5~6학년 학생들이 모여 2024학년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족 구성팀, 역할론티, 프로그램 개발팀 3팀으로 나뉘어 운영

하였다.

가족 구성팀은 1~6학년의 특성에 따라 무학년제로 12명 내외로 가족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다. 역할론티는 전교생 한자리 모임의 의미, 장.단점, 이꿈이와 부이꿈이의 역할에 대한 논의하여 의미를 재정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프로그램팀은 전교생한자리 모임 때 전교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실현해 보는 역할을 맡았다.

박순현 교장은 “학생 자치의 주체인 5~6학년이 자치 캠프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을 실행해 나가는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그 의미가 깊다. 학생들의 참여를 점점 더 확대해 가면서 민주적 합의와 의사결정의 참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말씀하셨다.

윤태용/기자

경북교육청, 장애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기반 진로·직업 교육 협력‘맞손’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의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지난 23일, 본청 303호 회의실에서 교육복지과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과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이하 훈련센터)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직업훈련체험 프로그램 연계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증가와 다양한 직업의 체험 경험 제공을 통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2023학년도 직업훈련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하고, 2024학년도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훈련센터 연계 직업훈련체험은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앞둔 전환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다양한 진로·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립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며, 직무 분야별 직업훈련과 직무 체험의 기회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직업훈련체험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경북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경북지사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연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에는 기본 체험, 심화 체험, 국립철곡숲체원 체험 프로그램 등에 도내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580명이 참여했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상반기에는 당일형의 기본 체험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철곡숲체원 체험을 운영하고, 원거리 학생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제공하였던 2일 형 체험(일 배움 과정)과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방문 체험을 확대 운영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훈련센터 연계 직업훈련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립 능력과 취업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실습과 체험학습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년 신학기 대비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구미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 점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024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구미경찰서, 구미시청과 협력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22일에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구미시 상가밀집 지역인 원평동 일대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현장에서 개선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이며 청소년 대

상 주류, 담배 판매행위,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의무 위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불건전 광고물 부착행위 등이며, 기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성희 교육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유해요소들을 사전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학교폭력 물렸거라! 조사관이 도와줄게”

의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이해 연수 실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목),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교장(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이 오전, 오후로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이해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사가 하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전담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연수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조사 시 학교 및 조사관의 역할과 사안처리 방법, 학교폭력제로센터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김OO 학교생활안전

부장은 “그간 피.가해자를 동시에 사안 조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요구와 제안으로 은근히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고충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연수 참가 소감을 전했다.

성태동 교육지원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로 조사관의 객관적 사안 조사를 통해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공정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 폭력은 발생 후 사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연수의 의의를 전했다.

정금자/기자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 2024년 멘토 위촉식 및 사전교육 실시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2월 23일(금)에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멘토 14명을 대상으로 2024년 멘토 위촉식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역사회 기관(대중교통 1학년 재학 이상인 자 포함) 14명을 멘토로 위촉하였다. 이날 위촉된 멘토는 학생 멘티와 1:1 만남을 통해 정서적지지 및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적응을 돕는 활동을 한다. 또한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스포츠, 문화, 진로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위촉식 이후 멘토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전교육을 진행해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을 높였다. 또한 활동 중 예상되는 어

려움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산교육지원청 이양균 교육장은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 멘토들이 학생들의 자아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좋은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메타버스로 더 가까워진’ ‘경상북도의 생활(4-1)’이렇게 활용하세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은 디지털 교육체로의 대전환에 따른 공교육의 내용과 방식 전환 요구 증대라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고자 2024학년도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 도서 ‘경상북도의 생활(4-1)’을 지능형 지역화 교재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지능형 지역화 교재란 기존 경상북도의 생활 교재는 단방향 서책형 교재로써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메타버스와 생성형 AI를 접목하여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교재의 지능화를 구현한다는 뜻이다.

메타버스 ‘경상북도의 생활’ 공간에

서는 학습 활동과 관련된 더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 원 클릭 검색 서비스, 온라인 토.토론 활동, 지능형 AI 활용 탐구활동, 에듀테크 기반 학습 결과물 공유 활동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이번 찾아가는 ‘지능형 지역화 교재 활용하기’ 연수는 지능형 지역화 교재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 지능형 지역화 교재 활용을 통한 디지털 수업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월 23일(금), 2월 26일(월) 이틀에 걸쳐 포항, 구미, 안동 3개 권역에서 도내 초등교사와 희망 교육전문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크게 메타버스·경상북도의 생활(4-1)·활용하기와 연구원에서 초등 4,5학년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독도 교재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독도 교재 100배 활용하기’ 연수도 함께 이루어진다.

박용휘 원장은 “지능형 지역화 교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능형 지역화 교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since 197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The 44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제44회 진도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4. 3.11. 월 ~ 3.13. 수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주최 Jindo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